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 비시민권자 투표금지법이 쟁점으로, 왜?

공화당이 연방의회에서 유권자 적격성 담보 법안(SAVE Act) 통과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기존 연방법으로 비시민권자의 투표행위는 형사기소 대상이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특별법 제정에 올인하는 이유는, 지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주

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기존 지지계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부 의견이다.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후 “투표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그 캠페인의 실천방안으로 이번 법안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을 향해 비시민권자의 투표행위가 어느 정도이며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 공화당 집토끼 결집 전략 부정선거 가능성 부각시켜

만, 공화당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브라이너 스테인 의원(공화, 위스콘신)은 “비시민권자가 무더기로 투표를 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이들의 대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공화)도 “제시할만한 구체적인 범죄의 사례는 없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모렐레 의원(민주, 뉴욕)은 “공화당이 노리는 이번 대선 쿠데타의 시발점은 바로 이 법안을 모의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일부 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시도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미 기존의 주 정부 법률로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

오하이오주는 최근 20년새 모두 137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시도했으나 모두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유권자 800만명 중에 극히 소수인 것이다.

조지아주도 최근 25년새 모두 1634건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시도 사건이 발생했으나,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2016년 대선 당시 노스 캐롤라이나 투표 참여 유권자 480만명 중 비시민권자 투표 행위는 41건이었으나 모두 합법적인 이민자의 착오에 의한 투표로 밝혀졌다.

김육재 기자

## ‘AI 블랙박스’ 첫 해독... ‘안전한 AI’ 길 열었다

오픈AI의 대항마 엔스로픽이 인공지능(AI)의 ‘블랙박스’를 열었다. 그간 알기 어려웠던 AI 작동 원리를 일부 파악해 보다 안전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생생 AI의 치명적 약점으로 꼽혀온 할루시네이션(환각), 편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엔스로픽은 21일 거대언어모델(LLM)이 작동하는 원리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내용을 담은 ‘LLM의마인드 매핑’이란 제목의 연구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엔스로픽은 오픈AI 창업 멤버인 다니엘라 에머데이 남매가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AI 기업이다.

엔스로픽의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AI의 사고 과정, 즉 작동 원리 일부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AI



의 ‘뇌 지도’ 일부를 파악한 셈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제이컵 안드레아스 MIT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게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듯, AI 모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상황이 잘못될 때를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더 나은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I의 작동 원리는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불려왔다. AI가 내놓는 답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개발자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발자가 AI의 작동 원리를 알아내면 유해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AI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증상과 AI의 편견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스로픽은 “AI의 편견, 안전 위험, 자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면서도 아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엔스로픽은 “AI 모델의 내부 작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자사 LLM 중 하나인 클로드 소넷의 수백만 개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엔스로픽은 ‘딕셔너리 러닝(dictionary learning)’이란 기법을 통해 자사 LLM인 클로드 소넷 내부에서 수백만 개의 ‘특징’(feature)을 추출해 개념화한 지도를 만들었다.

여성국 기자 >> 10면 ‘AI’ 로 이어집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랑노래 중)  
>> 관계기사 15면

신경림  
1936~2024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머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들리지 않아요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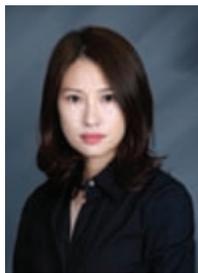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법사위원장도 개딸이 점지? 정청래 밀고, 박주민은 막고

개딸 “정, 눈치 안볼 자” 여론몰이 경쟁자 박 사무실 앞엔 항의 대자보 커뮤니티선 “박, 우원식 뽑아” 주장 당내 “위원장 지명, 원내대표 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이 22일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구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강성 당원이 붙인 항의 대자보. 강보현 기자, 뉴스1

식 의원과 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강성 당원은 박 의원을 ‘우원식 당선의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다. 각종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엔 박 의원에 대해 “사쿠라 기질이 보였다”(판지일보)거나 “법사위원장 자리 쥐뿔자 꼴치만 아프다”(디시인사이드)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개딸의 입김이 거세지는 상황을 두고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탈당 사태가 심각한 만큼 당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은 “법사위원장 지명은 선거로 뽑는 국회의장과 달리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못한 3선 의원이 출중이 대기 중인 상황을 고려해 “1년 임기라도 상임위원장을 지낸 4선을 또 시킬 순 없다”(원내지도부 의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거야(巨野)의 입법권력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팬덤 ‘개딸’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다”며 친명계 핵심인 4선 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선 관례적으로 3선 의원에서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정 의원이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1년만 지냈다는 이유로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지낸 2022~2023년 과방위는 회의 일방 소집 논란과 여당의 보

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했지만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강성 당원들의 논리다.

정 의원도 최근 개딸의 요구에 부응하는 글을 자주 올리고 있다. 그는 16일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뒤 “당원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10개나 올

렸다.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선 수차례 당원에게 사과했다.

반대로 또 다른 법사위원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에게선 불용이 튀고 있다. 2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박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엔 “박주민 의원님, 마음대로 하셨다면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라고 적힌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 옆에는 “우리가 개대지인 거지 뭐” “박병석, 김진표에게 당하고도 똑같이 생각하는 국개들” 등의 댓글을 캡처한 인쇄물이 나란히 걸렸다.

특히 박 의원이 개딸의 표적인 된 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

강보현 기자

# 야당 “22대 국회 열면 바로 추진”... 22조+ α 퍼주기 입법 예고

당선인 워크숍서 56개 법안 공유 25만원 민생지원금, 전세사기법 18세까지 월 20만원 기본소득도 채상병 특검·검찰개혁 등도 포함

“22대 국회가 문 열면 56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진정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원금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 41건과 검찰개혁법 등 국정기조 전환 관련 법안 8건,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법안 7건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56개 우선추진 법안 내용을 공유했다. 민생 관련 41건의 법안에 따르면 최소 22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필요하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건 이재명 대표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든다.

또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때문에 더 드는 예산은 약 3조원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집주인에게 폐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선(先)구제·후(後)회수)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은 5조원 수준의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한우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한 한우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각각 5년간 약 7400억원과 약 500억원이 필요하다.

기본사회 관련법안에는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바우처와 월 10만원 정도를 주는 자립펀드를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이 담겼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약하면서 연간 44조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역시 기본사회 법안 중 하나다. 올해 적자가 시작되는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적 간병비 규모를 연간 10조 원대 추산했다.

국정 기조 전환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80억) ▶김건희 특검법(81억 원) ▶대장동 특검법(142억) 등 약 300억원이 드는 ‘3특검’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국정조사 등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선인들에게 “우리 손에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삶이 달려 있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과 당선자분들이 할 일을 잘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김정재 기자



미 의회 연설사진 선물 받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하고, 지난해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받고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워싱턴 날씨 (°F)**

24일(금)	84-67	27일(월)	83-67
25일(토)	83-68	28일(화)	79-62
26일(일)	86-70	29일(수)	76-58

5월 23일(목) 81~6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3 - 6/7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b>Centreville (Main Office)</b>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b>Annandale (사랑방)</b>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b>Annandale (V)</b>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b>Richmond</b>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b>Gaithersburg (MD)</b>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 MD 살상 무기 금지법 소송 표류

### 연방대법원 각하, 연방제4항소법원 판결로 결정날 듯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메릴랜드의 살상용 무기 금지법 위헌 소송을 각하하고 하급심인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준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은 3년 넘게 메릴랜드의 살상용 무기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항소법원 소송은 원래 3인 합의부 재판이 통례이지만, 이 소송은 항소법원 판사 전원 합의제 소송으로 변경되는 등, 재판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메릴랜드는 1994년 반자동총금지에 이어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으로 26명이 사망한

이후 반자동소총의 소유와 판매 등도 금지시켰다. 하지만 다수의 총기옹호 단체가 이에 반발해 지금까지 연방과 주법원을 상대로 20여차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는 원고 측이 승리했으나 이후 담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엄격한 총기규제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하급심인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뉴욕주의 총기옹호단체는 '총기를 숨겨서 휴대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법률 조항 등이 보통의 평범한 국민의 권

리를 침해한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메릴랜드의 총기옹호단체는 반자동소총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총기이며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며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판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지타운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총기소유자 30%가 AR-15, 혹은 이와 유사한 반자동소총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은 10연발 이상 발사가 가능한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자동소총은 2500만정 이상이다.

김옥채 기자



(왼쪽부터) 박진우 포스코인터내셔널 북미지역 총괄 법인장,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김학조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공공외교사관, 김정훈 워싱턴한국문화원장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첨단기술 활용한 안내판 설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공사관) 앞에 새로운 안내판이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이 지난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의 협力が 오가며 이루어졌다.

총 5개의 안내판은 옥외에 설치된 종합안내판, 불로문(不老門)과 실내의 객당(客堂), 정당(正堂), 식당 등이며 안내판에는 19세기말 옛 공사관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가 포함되었다.

19세기 말 예 공사관의 모습과 현재 복원된 공사관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공사관의 원형과 복원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안내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고해상도 프린트 광판 ‘포스아트(PosART)’ 기술로 제작돼 질감과 입체감을 살렸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공사관 관람환경과 공공디자인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된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공사관 안내판 제작식을 계기로 같은 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포스코인터내셔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대한인국민회 기념관(LA)·서재필기념관(필라델피아)·뉴욕한인교회(뉴욕) 등을 대상으로 안내판 제작·설치 협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고려대학교 워싱턴교우회 “선후배 하나됐다” 고려대학교 워싱턴 교우회(회장 이기훈) 춘계 आयु회가 지난 19일, 50여명의 교우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레이크 페어팩스 공원에서 열렸다. 이기훈 회장은 “지금처럼 단란한 교우회 속에서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공경하면서 화목한 교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이날 आयु회에는 2000년대 이후 학번 교우들이 다수 참석해 교우회 세대교체의 밝은 전망을 예고했다. 김윤미 기자

## 별장주택 매매 시장 급랭

### 오션 시티 등 두자릿수 감소세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별장주택 매매 시장이 크게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체 레드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별장주택 매매 건수는 2022년 대비 40%, 2021년 대비 65% 줄어 들었다. 메릴랜드와 델라웨어, 버지니아 등 대서양 연안 지역 별장주택 매매도 펜데믹 이후 크게 줄었다. 메릴랜드 오

션시티와 델라웨어 리호보스 해변의 별장주택 매매 시장도 전년 대비 두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별장주택 매입 수요는 대부분 매입 후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렌트가 목적이었다. 팬데믹 기간 호텔 숙박 대신 에어비앤비 등의 인기가 치솟았다. 하지만 단기숙박 렌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팬데믹 종료 후 다시 호텔 숙박 비중이 높아지면서 별장주택 매매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역정부가 에어비앤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늘린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거주용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용 별장주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기지 이자율이 7%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투자용 주택 모기지 규정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용자를 얻지 못해 구입에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여파로 별장주택이 밀집한 해변가 지역의 주택보험료가 급등한 점도 무시하기 힘들다.

김윤미 기자

## 국적·병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에서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 및 병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잡하면서 오해 가능성이 큰 법안들을, 재외동포청 국적 및 병무 담당자들이 출석해 알기쉽게 설명한다는 취지다.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병

역 등에 관심 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오는 24일(금) 오후 3시부터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센터 2층 대강당(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서 열린다.

문의: 202-939-5653(주미대사관 영사부)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진보형 의료보험  
생명보험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만나셨습니다

정찬용 변호사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씨 사건 당시 현장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지만 일부에 그쳐 전체 영상 및 음성녹취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10일 '공공기록 정보 공개(Request for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Act)'를 청구한 바 있다. 6일 뒤 LAPD는 바디캠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의 전체 분량은 24분이지만 여러각도의 같은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장 상황 분량은 13분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총격 후 사건 수습까지는 대략 5시간 정도가 걸렸다.

정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총격 이후 양용씨 응급구조 상황 등 앞뒤 영상과 녹취를 모두 봐야 전체 맥락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며 "비록 일부 영상은 공개됐지만 당국에 정보 공개 청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디캠 영상을 봤나. "봤다. 유가족과 경찰의 엇갈린 발

언으로 불명확했던 부분은 해소됐다. 양씨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관이 '수차례 총격(multiple shots)'을 가한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영상으로 경찰의 과실 역시 드러났다."

-어떤 과실인가. "우선 강제적이지 않은 병원 이송을 가족이 희망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당시 양씨 아버지에게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디캠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책임 경관(수퍼바이저)은 '치료를 받도록 가게 하기 위해선 그를 강제로 빼낼 수 없다'고 양씨 아버지 양민씨에게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다가 경찰은 '침입(trespassing)'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유가족은 하지 않았다. 그럼 유가족은 당연히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양씨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또 다른 경찰의 과실은.



21일 정찬용 변호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가장 큰 문제는 바디캠 공개시 고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이다. LAPD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바디캠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

으로 평가하지만 양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모두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이름이 공개됐으니 얼굴도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더구나 부모님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사적인 정보인데 이름은 알려진다고 쳐도 모두가 보는 유튜브에 양씨의 얼굴과 집안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과실이다."

-양씨 가족은 바디캠 공개 후 '아들이 죽는 장면을 수차례 봐야 했다'고 성명서를 냈다.

"유가족 입장에서 겁에 질린 아들의 표정과 모습이 날같이 공개된 것은 모욕적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그의 경찰 과실이 있나.

"복부에 가한 세 번째 총격의 당위성, 비상상무기 소지 경관의 대응 여부, 911에 신고한 클리닉의 진술 등은 추가로 조사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시정부와 LAPD에 청구한 공공기록은 어떤 것들인가.

"사건의 전반을 담긴 5월 2일 오전 10시 50분~오후 3시 동안의 바디캠 및 차량 내부 카메라 영상 및 녹취록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공개된 바디캠은 주요 부분만 편집되어 실제 길이보다 짧다."

-짧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미 공개됐다. 더 필요한가.

"오가는 차 안에서 경관들이 나누는 대화, 그리고 현장 수습 과정 등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굵직한 것들이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시되는 사소한 대화들 속에서 총격을 가한 경관이 선입견이 있었는지 등 중요한 단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받아봐야 한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LAPD의 답변이 있었나.

"아직 받지 못했다. 27일까지 공공 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서(determination letter)'를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수아 기자

GBM 창업 박선근 회장, 엘리스아일랜드상 수상

미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민자들에게 수여하는 '엘리스아일랜드상' 2024년 수상자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역임한 박선근(사진) 회장이 선정됐다.



부연합회 초대 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지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 조지아주 항만청 부이사장, 조지 부시 대통령 아태 담당 정책고문 등을 맡아 주류 사회에서도 활동했다.

현재 박 회장은 한미우호협회장, 좋은이웃되기운동본부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엘리스아일랜드상은 1892~1954년 사이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인 엘리스아일랜드의 이름을 딴 상으로, 소수민족연대협의회(NECO)는 1986년부터 1세 이민자나 이민자 후손으로 각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시민권자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 왔다. 윤지혜 기자



K팝 그룹 LA시와 LA관광 홍보 협업 K팝 그룹 '라이즈'가 LA관광청과 협업해 LA관광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한 공로로 21일 LA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LA관광청은 라이즈와 함께 글로벌 광고 캠페인 'LA는 현재 상영중(Now Playing)'을 진행했다.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작한 6개의 영상에 라이즈의 데뷔 싱글인 '겟 어 기타(Get a Guitar)'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이 캠페인은 LA를 한 편의 영화에 비유해 전 세계 여행자를 LA의 레드카펫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1일 존 이(앞줄 왼쪽) 시의원과 돈 유(앞줄 오른쪽) LA관광국장이 라이즈 멤버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라이즈는 20일 LA 피크 극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으며, 오늘(22일) LA 다저스 구단이 여는 '한국 유산의 밤(Korean Heritage Night)' 기념행사에도 참석한다. 김상진 기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실버타운도 로케이션 가장 중요한 요소

도심형, 대형병원 가깝고  
전원형 보증금 저렴 장점  
역이민 한인들 관심 커져

한국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도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대부분 역세권에 있는 도심형, 수도권 중심 도시 근교형, 한적한 외곽에 있는 전원형으로 나뉜다.

도심에 위치할수록 보증금과 생활비가 비싸지만, 대형병원 접근성이 우수한 것이 최대 장점이다. 실버타운 유형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야 가장 적합한 실버타운을 찾을 수 있다.

### ▶도심형 실버타운

도심의 지하철 역세권 입지, KTX 연결 등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게 도심형의 최대 장점이다. 가족 및 지인과 교류하기 좋고 쇼핑물, 영화관 등 생활 및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어 편리하다. 특히 대형 병원과 접근성도 좋아 응급 상황 때 이동거리가 짧아 유리하다.

대신 서울과 근교 지역에 있어서 보증금, 생활비가 다른 시설보다 월등히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노블레스타워는 고려안암병원, 경희의료원 등 다수 대학병원과 지하철 4·6호선이 근접해 있는 대표적인 도심형 실버타운이다. 사진은 노블레스타워 로비. [웹사이트 캡처]

높다. 대부분 고급 실버타운 임대 보증금은 60만~90만 달러, 기본 생활비는 4000~5000달러 정도로 비싸다.

대표적인 고급 도심형 실버타운은 '더클래식500', '더시그널하우스', '노블레스타워', '하이원빌리지' 등이다.

호텔식 생활서비스로 실버타운계의 스카이크레슬로 불리는 '더클래식500'은 최고급 시설을 표방하는 만큼 월 생활비가 7000달러 정도로 가장 비싸다. 강남권 생활을 선호하는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시그널하우스가 인기다. 입주하려면 최

소 6개월에서 3년까지 대기해야 한다.

### ▶도시근교형 실버타운

도시근교형의 경우엔, 장점이 도심에서도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에 위치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생활편의시설도 근거리에서 갖춰 좋은 자연환경은 덤이다. 단 도심형과 비교해 보증금이나 생활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단점이다.

대표적인 도시근교형 실버타운은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삼성노블가운티, 마리스텔라, 유당 마을 등이다.

서울송도병원이 모기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는 6개 지점을 운영하며 한국 실버타운 점유율 1위 기업이다. 2003년 개소한 분당타워는 도심 속 전원형 실버타운으로 자연환경과 분당 서울대병원 근접이 최대 장점이다. 삼성노블가운티는 입주자 건강관리를 위해 실버타운 최초로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전원형 실버타운

대부분 한적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전원형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증금과 생활비, 수동시니어 실버타운, 미리내 실버타운, 청심빌리지 등이 있다. 수동시니어 실버타운 경우 보증금은 1만5000달러~7만 달러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대 장점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대형병원과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 ▶가성비 실버타운

한국에서 가성비 높은 대표적 실버타운은 서울시니어스고창타워, 경남 의령 일봉실버랜드, 김천 월명 성모의 집, 경기도 안성 미리내실버타운, 공주 원로원이 대표적이다.

개스·인기품목 가격 인상  
핫도그 1.50불 당분간 유지



대형 멤버십 쇼핑몰인 코스트코가 최근 개스 가격을 비롯해 주요 인기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19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리처드 캘런티는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주유소에서 인근의 경쟁 주유소와 함께 매우 실시하는 주유소 가격 경쟁을 통해 실제로 캘런티 1센트씩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캘런티 CFO는 또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코스트코의 인기 멤버십인 코스트코 골드 및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의 가격 인상을 암시했다. 인상 금액은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트코는 대량 구매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쇼핑객들에게 일종의 피난처로 통했으나 인기 품목의 가격 인상 또한 불가피해졌다.

잇디스나트(ETNT)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쇼핑객들은 커널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브루클린의 한 매장에서는 2023년 3월 16.99달러에서 올해 24.99달러로 올랐다.

다만 코스트코의 오래된 스테디셀러인 핫도그와 탄산음료 코보의 1.50달러 가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코스트코는 창업자의 약속 덕분에 약 40년 동안 이 코보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폭스 비즈니스는 이전에 보도한 바 있다.

## 월가, S&P500 목표 상향 잇따라

증권사 11곳, 전망치 수정  
BMO, 5600으로 가장 낙관  
JP모건체이스 비관론 유지

뉴욕 증시가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올해 목표가를 서둘러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일 마켓워치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내 증권사 11곳이 S&P500지수 연말 전망을 수정했다. 지난주에만 BMO캐피털마켓과 도이체뱅크가 S&P500지수 올해 목표가를 각각 5600과 5500으로 올렸다. BMO의 5600은 마켓워치가 추적하

는 월가 대형은행과 리서치회사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로, S&P500 지수 이날 증가보다 5.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웰스파고도 5400과 5535로 목표지수를 상향한 바 있다.

특히 월가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려진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투자책임자(CIO)도 강세론으로 돌아서 S&P500지수가 내년 2분기까지 54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윌슨 CIO의 이번 전망은 내년 2분기까지여서 다른 기관의 전망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이전 12개월 전망을 통해 올해 말까지 450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다우가 4만 선을 돌파하자 트레이더가 환호하고 있다. [로이테]

그는 메모에서 "미국의 경우 견고한 주당순이익(EPS) 성장을 예상하지만 (주가)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모건스탠리가 낙관론으로 돌아섬에 따라 JP모건체이스만이 거의 유일한 비관론자로 남게 됐다.

JP모건의 글로벌 증시 수석 전략가인 두브라브코라코스-부하스와 수석 시장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지난

해 11월 S&P500지수의 올해 연말 목표 주가를 4200으로 제시한 이후 현재까지 그러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날 증가와 비교해 21%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콜라노비치 전략가는 이날 메모에서 최근 주가 상승으로 자신들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 고금리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유지했다.

마켓워치가 자신들이 추적해온 월가 금융기관들의 최근 수정 전망치를 감안해 제시한 S&P500지수의 연말 평균 전망치는 5289다.

이에 비해 지난해 말까지 이들의 평균 연말 목표주가는 5117이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동(미락조동),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300m 뉴타운홈

미락조동 대장동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85; VA MC-71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 중국, 미군수기업 12곳 '맞불 제재'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제재에 나선 데 반발해 미국 군수기업 12곳에 대한 '맞불 제재'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외교부령 제7호 공고문을 통해 미국 군수기업 12곳과 기업 고위 관리 10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입국 불허 등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 앤 시뮬레이션, 아이언마운틴 솔루션 등 12개사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중국 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을 동결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방산업체 노스롭 그러먼의 케이지 와드 회장을 비롯해 사장, 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사장, 부사장 등 총 10명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사진]

에 대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결정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한동안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건설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소위 러시아 관련 요인을 근거로 다수 중국 기업에 불법·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자행해왔다"며 이는 중국 기업과 기관,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트럼프, 경합주 7곳 중 5곳 우위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경합주 7곳 가운데 5곳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와 달리 이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통신이 모닝컨설트와 함께 7~13일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이상 오차범위 ±3%포인트),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이상 오차범위 ±4%포인트), 네바다(오차범위 ±5%포인트) 등 7곳 경합주를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와 미시간 2곳을 제외한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애리조나에서 5%포인트 ▲조지아는 3%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 7%포인트 ▲펜실베이니아 2%포인트 ▲위스콘신 1%포인트씩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았다.

반면 네바다는 동물을 기록했으며 미시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앞섰다. 블룸버그통신의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4곳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2~3%포인트 정도 줄었다.

네바다의 경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8%포인트로 앞섰으나 이번 달은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미시간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위가 지난달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아졌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를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했다. 경합주 7곳 전체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 44%를 기록한 바이든 대

통령보다 4%포인트 우위에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우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이번 달 뉴욕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격전지에서 선거 행보를 이어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성 추문 입막음' 논의와 관련된 재판에 참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이번 달 여론조사는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NYT의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 12%포인트 ▲조지아 10%포인트 ▲애리조나 7%포인트 ▲미시간 5%포인트 ▲펜실베이니아 3%포인트씩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았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뺀 6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2%포인트 앞섰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는 대선 및 대선 이후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별로'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18%나 됐다.

# 죽은 자식 놓지 못하는 어미 침팬지

어미 침팬지가 3개월 동안 죽은 새끼를 안고 다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CBS 방송 등이 21일 보도했다.



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애도도 존중돼야 한다며 "처음에는 죽은 새끼 침팬지를 보고 충격을 받는 관람객들도 우리가 왜 시신을 어미와 함께 놔두면서 관찰 중인지를 설명하면 납득한다"라고 말했다.

나탈리아는 이미 2018년에도 새끼 한 마리를 잃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인간과 유전자의 98%를 공유하는 영장류인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슬픔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은 죽음에 대해 고도로 발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 2010년 발표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비오파크 동물원에서 나탈리아(사진)라는 이름의 어미 침팬지가 슬픔에 잠긴 채 죽은 새끼의 시신을 100일 가까이 한순간도 품에서 떼어내지 않고 있다. 3개월여 전 태어난 나탈리아의 새끼는 세상에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침팬지도 가까운 이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으며 나탈리아와 같은 행동은 과거에도 동물원이 나 야생의 침팬지에게서 관찰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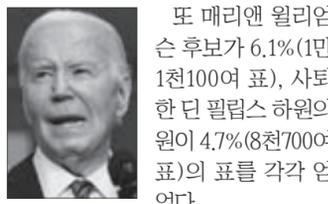
그러나 그 기간이 이번처럼 긴 경우는 드문 일로, 나탈리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동물원 측은 설명했다.

비오파크 동물원장 미겔 카사레스

# 바이든 발목잡는 '지지후보 없음'...켄터키 경선서 18% 달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로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이미 내정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지후보 없음' 표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잇따라 나와 바이든 캠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22일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당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하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방식으로 치러진 켄터키주 민주당 경선 결과, 9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71.3%(13만1천400여 표)의 득표를 했지만 '지지후보 없음'(Uncommitted)이 17.9%(3만2천900여 표)에 달했다.



민중당 경선에서 나온 '지지후보 없음' 표는 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일부 지지층의 항의 표시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2월 경선이 치러진, 대표적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3월 경선이 실시된 신흥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미네

소타주에서 '지지후보 없음' 표는 각각 13%와 19%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쏠렸던 미국내 아랍계·무슬림 표심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 탈한 것은 물론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4월28일~5월9일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위스콘신 등 5개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랍 출신 및 무슬림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57% 대 25%로 크게 앞섰다.

#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 기대감에 주가 6.7% 급등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전기 트럭 일러트럭인 '세미'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주가가 6% 넘게 급등했다.

21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66% 오른 186.6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194.05달러) 이후 약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전장까지

약 30%의 낙폭을 기록했다가 이날 상승에 힘입어 연중 낙폭이 25%가량으로 줄었다. 이날 주가 상승에는 테슬라 측이 세미 생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전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당초 2019년부터 세미 트럭을 양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대



테슬라가 2017년 공개한 '세미' 트럭 이미지

형 트럭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 탓에 일정을 계속 미루다 2022년 12월에야 첫 세미 트럭을 식음료업체

웹시코에 인도했다. 테슬라는 이후에도 배터리 문제 등으로 세미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테슬라 임원 낸 프리스틀리는 전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첨단청정운송(ACT) 엑스포에서 "우리는 2026년 고객 인도를 위해 네바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 용량을 연간 5만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테슬라가 웹시코와 함

께 세미 약 35대로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이며, 웹시코가 추가로 50대의 트럭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프리스틀리는 또 장거리용 세미가 2만3천파운드(10.4t)의 중량을 적재하고 최대 500마일(805km)까지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트럭은 (테스트에서) 24시간 동안 1천마일(1천609km) 넘게 달릴 수 있었는데, 고속 충전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23<sup>RD</sup> - MAY 30<sup>TH</sup>, 2024**



JAPAN'S NO.1 GREEN TEA BRAND

**ITOEN**  
**Oi Ocha Green Tea**  
 이토엔 오이 오차 녹차



**\$6.99** ← ~~REG. \$14.99~~  
 500 mL X 6 BTLS/PKG



SMILE, YOU'RE HOME!

**HELLO HOME**  
**PIGMENT PAD**  
 헬로홈 한국산 최고급  
 면 60수 피그먼트 패드



**\$23.99** ← ~~REG. \$49.99~~  
 PINK/WHITE/BLUE  
 QUEEN SIZE (150 CM X 200 CM)/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ASML “중국, 대만 침공땐 TSMC 장비 원격 섀다운 가능”

블룸버그 “시뮬레이션도 했다” 보도  
 첨단 반도체 제조 쓰이는 EUV 장비  
 유사시 무력화시킬 스위치 갖춘 듯  
 TSMC 회장도 “침공엔 공장 불능화”



네덜란드 ASML 본사에 전시된 버스 크기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모습. 전 세계에서 이 장비 생산업체는 ASML뿐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최첨단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만 내 ASML 설비를 원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 내 반도체 생산시설은 어떻게 되느냐”며 대

만과 네덜란드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ASML 관계자는 “원격으로 장

비를 강제로 섀다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정부와

ASML은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에 대해 TSMC, 네덜란드 무역부는 논평을 거부했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상무부 대변인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해당 장비는 시내버스 크기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다. EUV는 고주파 광파를 활용해 현존하는 최소 마이크로칩 트랜지스터를 인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및 군사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이 장비는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원격 비상정지(킬 스위치) 장치도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1대당 가격이 2억 유로(약 2960억 원)인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ASML이 유일하다. ASML은 2016년 처음 개발한 이 장비 가운데 200대 이상을 중국 외 다른 국가에 팔았는데, 가장 많이 구매한 업체는 TSMC다.

앞서 마크 류 TSMC 회장도 지난해 9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이 침공을 받는다면 TSMC 공장은 섀다운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당시 “아무도 TSMC를 무력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군사 침공이 발생하면 TSMC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기 기자

## 후퇴하는 젤렌스키 울분... “러 본토 군사표적 때리게 해달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유력매체를 통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불철 대공세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전황을 언급하며 미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내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에서 ‘거대한 이점’을 누린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공격에서 이를 악용한다고 설

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직접 충돌, 그로 인한 확산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라는 제한을 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병참 허브와 러시아 영토에 있는 그들의 항공기를 파괴해야 자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군은 국경 너머로 러



시아군이 공격을 위해 집결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들을 타격할 힘이 없다고 토론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직접 충돌 우려가 없이도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아다니는 미사일을 직접 격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의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영공

에 들어오지 않은 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순전히 방어적 전술로, 러시아 군과의 직접적인 전투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의 이 같은 군사지원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달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이 발사한 드론·미사일 격추를 지원한 점을 자신의 제안과 비교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교에 대해 백악관은 “다른 갈등들, 다른 영공, 다른 위협 상황”이

라고 답변했다고 NYT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동맹국이 더 많은 F-16 전투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이날 끝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가 중단됨에 따라 대선 없이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쟁 초기 90%에 이르던 그의 지지율은 지난 2월 60%로 하락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건전성을 평가해달라는 NYT의 요청에 “우크라이나는 누구에게도 민주주의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국민은 전쟁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전술핵 훈련 개시 러시아군 병사들이 21일(현지시간) 시작된 전술핵훈련을 위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옮겨 실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방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훈련 1단계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전술핵무기 훈련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외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훈련도 포함된다. 같은 날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주에서 다른 국가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 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AP·연합뉴스]

## 아일랜드·노르웨이·스페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전쟁 장기화에 ‘두 국가 해법’ 확산  
 이스라엘 강력 반발, 대사 즉각 소환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스페인 3국이 22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의 장기화로 이 지역의 인도적 재앙이 최악으로 치닫자 궁극적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또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군사 작전을 강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하

원 연설을 통해 “오는 28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가자지구의) 병원, 학교, 주택을 폭격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평화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종전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독립 국가임을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르웨이·아일랜드 정부도 각각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요나스 가르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로이터통신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 인정이 없다면 중동에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28

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결국 평화로운 공화국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는 국가로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이 중동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미셸 마틴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이를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하며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주재 이스라엘 대사에게 즉각 소환 지시를 내렸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부(PA)와 하마스는 환영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39개국에 달한다. 박형수 기자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CUCKOO

## 쿠쿠 5월 가정의 달

# ONLY 쿠쿠 프로모션

기간 | 04.26.2024 - 05.28.2024

조건 | 기간 내 주문 & 5월 내 설치

### 쿠쿠 최초! 최대! 최고가의 밥솥 증정! & 쿠쿠 제품 최대 할인!

증정품

6-Cup HP Twin Pressure Rice Cooker  
\$330 VALUE



CRP-ST0609FW

CRP-LHTR0609FW

쿠쿠라서 가능한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증정품

6-Cup IH Twin Pressure Rice Cooker  
\$550 VALUE

## 일시불 최대 40% 할인



\*제품별 할인율 다름

프리미엄 제품 구매 시  
**20% 할인** ◦ 블렌더 증정

프리미엄 2nd 제품부터  
**40% 할인** ◦ 트윈프레서 밥솥 증정

## 렌탈 시 다운페이 면제 & 최고급 프리미엄 쿠쿠 밥솥

타사 고객 보상 혜택은 또 추가 선물 증정

- 1건 렌탈 시 쿠쿠 블렌더 증정!
- 2건 렌탈 시 트윈 프레서 밥솥 증정!
- 3건 이상 렌탈 시 프리미엄 IH 압력밥솥 증정!



증정품

## 쿠쿠 시그니처 제품 인상전 가격으로 특별 할인

일시불 / 렌탈  
시그니처 제품

CP-P011G / CP-P011T / CP-MN031BK



##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 할인



증정품

일시불  
최대 **\$1,500 할인** ◦ LED MASK 증정

렌탈 시  
3D 다운페이 면제 **-\$500-** ◦ LED MASK 증정  
3D / 4D

### Virginia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하이트론즈 Centreville 571-404-4132  
건강마을 Centreville 703-712-7116

###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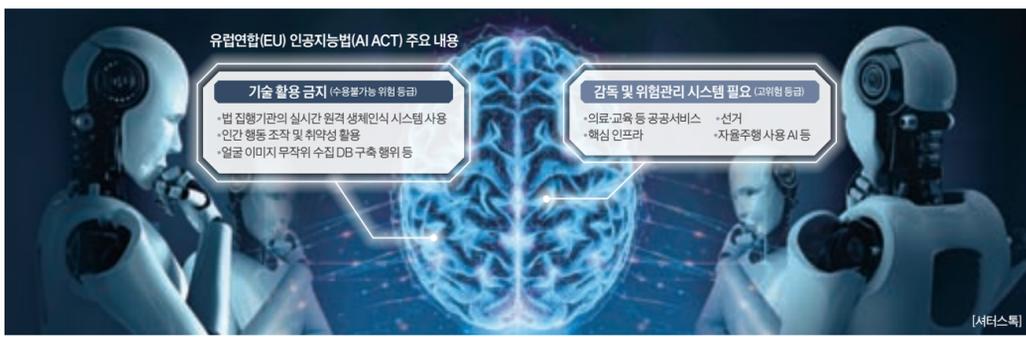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 의료·교육 사용엔 사람감독 의무

AI 규제, 2026년 전면 시행 확정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사법·금융·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미국·일본 등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세계 각국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27개 회원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다음 달 발효되는 EU의 AI법은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을 우선 시행하고, 1년 뒤엔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람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다. 다만 챗GPT와 제미니AI,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등 이미 출시된 생성형 AI에는 3년의 '전환 기간'을 주고, 2027년부터 규



CCTV 얼굴수집해 DB화 '원천금지' 딥페이크 이미지, 출처 명시해야  
어기면 글로벌매출의 7% 벌금 가능

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네 단계로 차등 규제한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 등급에 해당해 원칙적으로는 규제 대상이다. 다만 테러나 납치·강간 등 심각한 고 긴급한 범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 TV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도 EU 역내에서 AI 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의료, 교육, 시험 채점, 채용, 선거, 핵심 인프라, 이민,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는 동시에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한된 위험'과 '최소 위험'의 경우 개발 기업에 '투명성 의무'를 부여했다.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AI 학습에 투입된 데이터에 대한 출처를 명시해야 한

다. 아울러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생성형 AI가 산출해낸 영상·이미지·소리에 대해서는 AI가 만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만약 시스템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범용 AI에 대한 위험 평가·완화, 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추가로 부여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집행위 연결총국 산하에 'AI 사무소'를 신설해 AI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글과 메타, 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은 EU의 AI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이 AI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란 점에서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어서다. EU의 AI법이 생성형 AI에 강세를 보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수 기자

## 구글·오픈AI·삼성 등 AI 안전서약... "공공안전 위협엔 서비스 중단"

'AI 서울 정상회의' 빅테크 16곳 참석  
기업 내·외부 '레드팀' 구성해 평가  
이재용 "지속가능 AI 개발에 최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가 AI의 위험 기준치를 설정해 수위가 높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글로벌 주요 기술 기업 16곳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프런티어 AI 안전 서약'에 합의했다. 삼성전자·네이버·구글·오픈AI를 비롯해 중국의 지푸AI와 아랍에미리트(UAE) 기술혁신연구소가 참여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미·아시아·유럽·중동 기업이 AI 개발에 대한

안전 약속에 합의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는 국내외의 14개 기업이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서울 기업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워터마크로 구분할 수 있게 조치하고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발전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오픈AI가 공개한 'GPT-4o'(포오)가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해당 목소리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선 AI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AI 모델 안전 연구소인 METR의 베스 반스 소장은 "AI 개발이 공공 안전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해질 수 있는 '레드 라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런티어 AI 안전 서약엔 '기업의 AI 모델이 합의된 위험 기준치를 초과할 염려가 있을 때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기준치 이내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스스로 서비스 배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 내·외부에 레드팀(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팀)을 구성해 AI 모델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AI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투명하게 공유하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AI 안전 서약'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기로 약속했다. 기업 개별적인 AI 안전도 강화한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1일 열린 정상 세션에서 "AI 안전 실행 프레임워크인 'NAVER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도 "글로벌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장관 세션에서는 AI 안전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이 담긴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다. 강광우 기자

##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Anthropic)

- 'AI 블랙박스' 첫 해독**
- AI의 내부 작동 원리 일부를 최초로 파악
  - AI 내부 '특징'을 인위적으로 증폭하거나 억제해 AI의 생성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발견
- 특징**
- AI 모델 '클로드' 시리즈로 오픈 AI와 경쟁
  - 안전한 AI 개발 강조하며 오픈AI와 차별화

## AI의 잠재적 위험성 미리 파악 "AI의 그럴싸한 거짓말·편견 줄일 수 있게 돼"

▶ 1번 'AI'에서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Golden Bridge'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LLM 내부에서는 한국어 '금문교'나 '캘리포니아' '현수교' '샌프란시스코' 등의 연관 단어만 언급이 활성화된다. AI 모델 내부 작동 방식이 인간처럼

유사한 개념을 통해 해당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과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앤스로픽이 AI 내부 특정한 특징을 인위적으로 키워거나 억제해 AI의 생성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클로드에 "네 물리적

모양은 뭘?"라고 물으면 "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AI 모델"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Golden Gate Bridge'에 대한 편향을 키우면 "난 금문교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서영주 포항공대 AI 대학원 원장은 "블랙박스로 여겨진 LLM의 작동 원

리 일부를 파악한 점 이외에도 AI 내부에 인위적인 '좋은 편향'을 주는 방식으로 윤리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AI, 윤리적인 AI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국 기자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유니티 보험**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 소중한 가족 건강 우메켄 덕 좀 보세요

우메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2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 이벤트 1

우메켄 전제품 중  
동일제품 2개 구입 시

# 20

% 할인

### 이벤트 2

발효 미네랄 L-칼슘  
구입 시



Free Gift

L-칼슘(2달분)  
무료 증정

• 이벤트 1, 2 중복 적용 안됨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타운 (443)878-902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 관가 “만만한 공무원만 책임 물어… 일하기 힘들다”

책임 피하려 녹음 등 ‘기록’ 일상화  
승진 코스인 용산 파견 거부 기류도  
“레임덕 막으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책임론’이 쏙 들어갔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재부가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대책이 대부분이라 늘 비난의 화살을 맞곤 했는데 이번엔 절묘하게 빠져나갔다”며 “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각종 대책 추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 어렵겠다 싶은 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국토교통부에선 ‘용산(대통령실) 파견’ 거부가 급기이다. 대통령실 파견은 ‘에이스’ 공무원으로 인종받았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힌다. 부처로 복귀할 때 ‘영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일부 간부가 파견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돌았다. 관가에서는 ‘용산의 힘’이 벌써 정권 초반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정책 추진부터 인사까지 복지부동 사례가 두드러진다. 2022년 임기 초부터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여전히 압승하면서다. 최근 해외 직구 대책 반복 사례도 공무원 사회에선 “몸을 사려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역대 최저(2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기 중반을 맞아 한창 탄력을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대통령실 파견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낮아지는 등 인사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교육부 B국장은 “용산으로 가면 과거처럼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게 뻔한 정책은 총대를 메고 막아야 한다”며 “일은 고되지만, 티는 안 날 게 뻔하다는 기류가 있다”고 털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C과장은 “조금 이른 듯한 지금이 딱 애매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며 “까딱 용산으로 파견 나갔다가 정권 말까지 남을 경우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찍혀 난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 ‘면피’를 위한 기록은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따른 트라우마다.

정권 색채가 짙은 실업급여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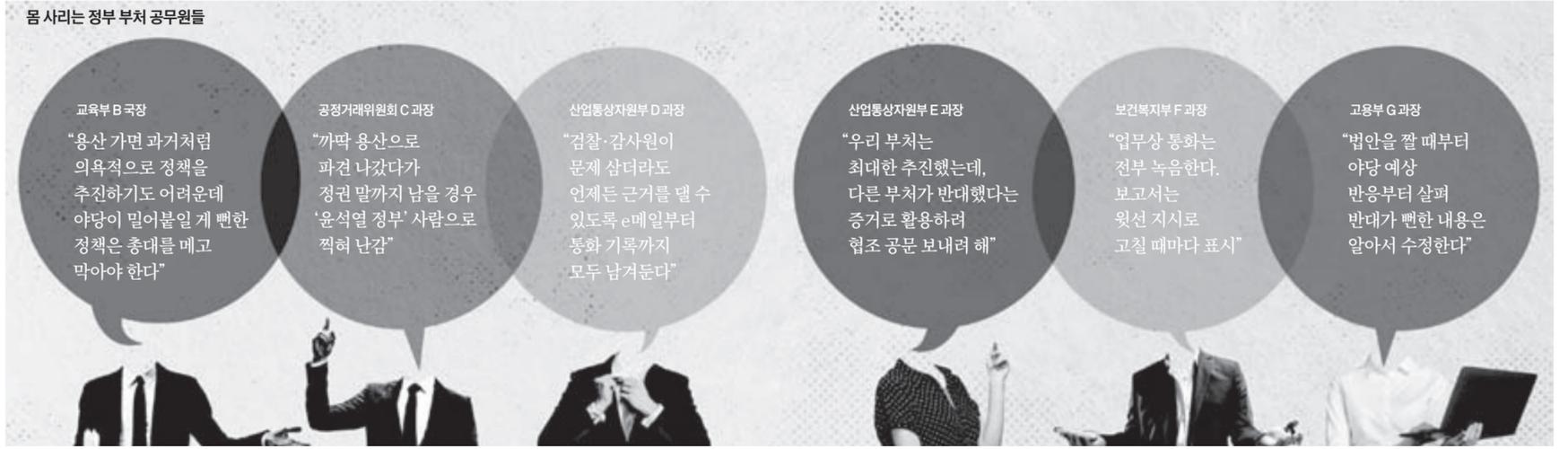
고용노동부 G과장은 “법을 잘 때 야당 예상 반응부터 살펴 반대가 뻔한 내용은 알아서 수정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가까워질수록 질질 끌려가느니 그나마 얘기라도 통할 법한 수준으로 법안 수위를 조절한다”고 말했다.

이런 업무 추진 방식을 반복하면 정책 추진 시 ‘무기력증’에 빠질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 반대가 극심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걸 더 민감한 상속세 개편 등 이슈는 수면 위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기

재부 H국장은 “최대한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정권 말로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다”며 “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 정책 법안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거나 최소한 선전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속도’가 빨라진 데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면, ‘강도’가 세진 건 ‘학습 효과’ 때문이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감사·수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공무원이 피를 봤다. 행정안전부 I과장은 “보신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만만한 실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강단 있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김민준·나상현 기자



## 용산 “공매도 재개는 이복현 개인의견”... 또 정책 엇박자

(김갑원장)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기구가 엇박자를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용산의 입장을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복현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는 표현,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원장의 발언은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제책이었다.

당시 이 원장은 투자 설명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밸류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

들을 만나 6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간 조율을 거쳐야만 나올 법한 발언이었다.

예초 정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던 터라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6월 재개 가능성”이란 보도가 쏟아졌다.

특히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발언이라 그에 더욱 힘이 실렸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에 베풀하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거품에 경고 신호를 주고, 특정 세력의 시세 조종을 억

제하는 등의 순기능이 많지만, 대다수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불법 무차입 공매도나 주가 하락 등의 문제를 이유로 금지 목소리가 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원이 대통령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6월 중에 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 공매도 6월 재개는 이 원장의 100% 개인 의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정책 엇박자를 막기 위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매주 만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매도뿐

아니라 해외직구 금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 성격이다.

당·정·대는 정책협의회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성태윤 실장은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반전 카드가 될 만한 ‘1호 법안’도 고심하고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관련 대책이나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지원 패키지 등이 거론된다.

박태인 기자

##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2024

# 강원도 특판전

Specials from the peaceful mountains of the Gangwon Province.

MAY 24<sup>TH</sup> - JUNE 6<sup>TH</sup>, 2024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제품들을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Experience the finest of Gangwon Province with our exclusive product showcase.



Sokcho Style Myungtae Cold Noodles  
속초식 명태회냉면/회비빔냉면

**\$ 7.99** COLD(2.78 LB) /BIBIM(1.72 LB)



DMZ PUNCHBOWL Dried Radish Greens  
DMZ 편치볼 바로 시래기

**\$ 1.99** 7.05 OZ



BONGPYUNG Buckwheat Sikhye  
봉평메일 냉식혜

**\$ 4.99** 1500 mL



Soup Stock (Beef Flavor)  
동치미 냉면육수

**\$ 0.69** 11.64 OZ



Spicy Cold Chewy Noodles  
청우림 비빔졸면

**\$ 3.99** 15.16 OZ



Mugyo-Dong Yujeong Small Octopus  
무교동 유정낙지

**\$ 6.99** 10.58 OZ



100% Pure Perilla Oil  
서원당 100% 들기름

**\$ 12.99** 170 mL



SEOLWON Dried & Sliced Pollack  
설원 황태채

**\$ 10.99** 7.05 OZ



SEOLWON Dried Pollock  
설원 황태포

**\$ 4.99** CUT/1.94 OZ



TIGAKTEGAK Fried Sweet Rice Crackers  
티각태각 후라이드 누룽지  
KIMCHI/INJEOLMI/CHURROS - 7.05 OZ

**\$ 3.99**



Delicious Memories Scorched Rice  
구수한 추억의 누룽지

**\$ 3.99** 10.58 OZ



Delicious Memories Scorched Buckwheat Rice  
구수한 추억의 메밀누룽지

**\$ 4.99** 10.58 OZ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 김호중 “소폭 등 10잔 마셔 만취 안됐다”… 검찰, 구속영장

CCTV 등 분석, 만취운전 증거 확보  
소속사 직원 “블랙 메모리카드 삼켜”  
김씨, 공연 후 활동중단 선언했지만  
영장심사 내일 정오, 공연 무산 위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장조 등)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도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와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성립한다.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김호중은 오는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라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24일 낮 12시로 정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8시 시작한 공연은 개최가 불투명하다. 김씨는 심문이 끝난 뒤 구치소에서 대



경찰이 22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씨. [연합뉴스]

기해야 한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씨는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술을 마셨다”며 “식당에서는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양주는 마시지 않았고 소주만 3~4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음주 영향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가 만취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가 조사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추후 음주운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 피고사 혐의,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고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김씨 대신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5일 경찰 조사 직후 “운전자 바뀌치기를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전날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조사가 끝나고도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하다가, 오후 10시41분쯤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고 한 뒤 귀가했다. 이보람·조문규 기자

## “김계환에게 VIP 격노 들었다” 공수처, 추가 진술 확보해 추궁

김 사령관, 박정훈과 대질하려하자 “조사실 나가버리겠다”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아닌 해병대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소환 조사 때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사령관을 추궁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



김계환

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외교안보 관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내용이 있다. VIP 격노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진원지로 그간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지목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해병대에 비역연대는 그 이후 김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VIP 격노설을 줄곧 부

인해왔던 김 사령관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건 지난 4일 공수처의 1차 소환조사 때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한 공수처의 질문에 부인으로 일관했던 그 전과 달리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지난 21일 2차 소환 조사 때 김 사령관에게 해병대 고위관계자 등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알리며 추궁했다. 또 박 대령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대질신문에 적극적으로 응한 박 대령 측과 달리 김 사령관은 “대질하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양수민 기자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현충원 참배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묵념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50만대 북미 픽업트럭 시장... 토요타에 현대차·BYD 도전

북미 자동차 시장 쟁탈전  
엔저로 북미서 급성장한 토요타  
텍사스 공장 증설에 7300억 투입  
현대차, 픽업트럭 변경 모델 출시  
중국 BYD는 멕시코서 신차 내놔

중남미에서 전기 픽업트럭을 내놓았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요타 북미 사업부는 텍사스 공장 증설에 5억 317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토요타 툰드라 픽업트럭과 세쿼이아 SUV가 주로 생산되고 있다. 토요타는 성장세가 정체된 전기차 대신 픽업트럭과 SUV 설비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토요타는 최근 북미 시장에서 엔저 효과를 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토요타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20.3% 늘며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회사 중 가

장 높은 성장세를 자랑했다. 판매량은 56만5098대에 달했다. 최근엔 픽업트럭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요타가 북미 시장에 판매 중인 중형 픽업트럭 타코마(Tacoma)에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판매 중이다.

현대차는 뒤늦게 북미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해 토요타를 추격 중이다. 현대차는 2021년 북미 시장을 겨냥해 만든 첫 픽업트럭 썬타크루즈를 출시했다. 그 해 7월 본격 판매를 시작한 썬타크루즈는 올 3월까지 미국 시장에서만 9만1614



1 토요타의 2024년형 타코마 트레일헌터. 2 중국 BYD가 멕시코 시장에 출시한 신형 픽업트럭 사크. 3 2021년 출시 후 올해 누적 10만대 판매가 유력한 현대차 썬타크루즈. [사진 각사 홈페이지]

대가 팔렸다. 이르면 상반기 내에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조만간 미국 시장에 부분변경 썬타크루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 역시 내년 중 첫 픽업트럭 타스만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아 화성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 출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대차와 기아는 향후 전동화 전환 계획에 맞춰 전기 픽업트럭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탯이스타에 따르면, 올해 북미 지역 픽업트럭 판매 대수는 25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판매금액은 792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박영우 기자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다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그의 미소처럼... 서러운 이들 시로 보듬었다

못 가져 서러운 이들의 한과 신명을 정감 있게 그려 사랑받은 『농무(農舞)』(사진)의 신경림 시인이 22일 오전 8시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88세.

1936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학생 때 한국전쟁을 겪었다. 충주고를 거쳐 동국대 영문과에 진학, 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등이 추천돼 등단했지만 시 쓰는 일에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65년 "내가 시를 쓰지 않으면 나도 쓰지 않겠다"며 붙드는 김관식 시인 손에 이끌려 다시 서울에 올라오기까지 10년간이 공백기다. 지방을 떠돌며 광부·장사꾼·잡부·영어학원 강사 등을 전전한다. 대학 시절 독서회에 가담해 '공산당 선언'을 탐독하기도 한 고인은,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특히 분노했다고 한다. 북수심과 체념으로 농촌 해체의 현실을 기록한 시편들이 75년 창비시선 1호로 출간된 『농무』의 뼈대를 이룬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파장』), "우리는 분

『농무』의 시인 신경림, 88세로 별세 20세 등단했지만 시 쓰기에 회의 광부·잡부 등 10년 전전하다 복귀



신경림

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물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픈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농무』).

절창이라 할 이런 시편이 수록된 『농무』는 원래 자비 출판 시집이었다. 새로운 문학이념에 맞는 작품에 목말라하던 출판사 창비가 74년 제정된 1회 만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듬해 창비시선으로 증보 출간했다. 창비의 좌장 백낙청씨가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아 마땅한 문학", 평론가 유종호씨가 "이전의 시집들을 주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집"이라고 극찬한 가운데, 주변부 삶으로 밀려난 농촌 현실을 그린 대표적인 민족 시집으로 평가받는다.

고인은 만해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혼자만이 아는 관념의 유희와 말장난으로 이뤄진 시에 대한 반발"로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후 『농무』는 10만 부 이상 팔렸다. 시인은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새재』(1979), 『달 넘세』(1985), 『민요 기행 1』(1985), 『남한강』(1987), 『가난한 사랑노래』(1988), 『민요

기행 2』(1989), 『길』(1990), 『갈대』(1996),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1999), 『낙타』(2008), 『사진관집 이층』(2014) 등의 시집을 썼다. 『한국 현대시의 이해』(1981),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3), 『우리 시의 이해』(1986) 등의 평론집도 펴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가난한 사랑노래'는 산업화 시기 도시 노동자 청년의 고달픈 삶을 노래한 시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가난한 사랑노래』 중)

시인은 생전에 낸 마지막 시집 『사진관집 이층』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아무래도 나는 늘 음지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늘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나를 불행하다



고 생각한 일이 없다/ 나는 그리면서 행복했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려니 여겼다// 서러진 것들의 조각난 꿈을 이어주는/ 큰 손이 있다고 결코 믿지 않으면서도"(『쓰러진 것들을 위하여』 중)

고인은 현실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사회 원로 지지 선언에 동참했고, 2015년 세월호 1주기에 추도 시 '언제까지도 우리는 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를 발표했다. 제주 4·3의 아픔을 담은 시집 『검은 돌 숨비소리』도 펴냈다. 만해문학상·단체문학상·대산문학상·시카다상·호암상 등을 수상했고,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동국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며, 장례는 한국시인협회·한국소설가협회·한국평론가협회 등의 문인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은 아들 병진·병규씨, 딸 옥진씨 등이 있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충주시 노은면 선영이다.

신준봉·홍지유 기자

## 청소로 모은 12억, 다 주고 떠났다

흥계향 할머니 90세로 별세 전 재산인 4층집, 10년전 기부약정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 1호' 등록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린 흥계향 할머니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노점상과 지하철 청소 등으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해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린 흥계향 할머니가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90세.

1934년 부산에서 태어난 흥 할머니는 21살(1954년) 되던 해 결혼하면서 서울로 상경했다.

이후 김·미역 노점상과 폐지 줍기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49살 때인 83년 성남시에 정착했다. 성남시는 흥 할머니의 제2의 고향이었다. 그는 지하철 청소와 공장 근로자 등으로 다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2002년에 성남시 중원구에 4층짜리 주택을 신축했다. 하지만 인생은 녹록하지 않았다. 2010년 질병으로 하나뿐인 딸을 잃었다. 치매를 앓던 남편도 2013년 12월 별세했다.

흥 할머니가 기부를 결정한 건 2014년 6월이다. 당시 일을 쉬면서 인근에 있던 성남동복지회관에서 급식 봉사 등을 도왔다고 한다. 홀로 성남시장실

을 찾아 "전 재산을 사후에 성남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금에 사용하도록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흥 할머니를 '행복한 유산 기부자 성남시 1호'로 등록했다.

기부 당시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이던 흥 할머니의 주택은 현재 12억원 상당이다. 흥 할머니는 기부 당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성남에 살면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은 덕에 큰 걱정 없이 살게 됐다"며 "먼 친척이 있긴 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온 주민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부 후에도 흥 할머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올해 2월엔 오른쪽 다리뼈도 골절되면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병원에서 생활했다.

흥 할머니는 2006년에 서울대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하면서 뜻을 이루진 못했다고 한다. 흥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했던 성남동복지회관 정안진 관장은 "흥 할머니는 의식이 많이 깨어 있고, 바르게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라며 "설날이면 지역아동센터에 온 아이들에게 3000원씩 봉투에 담아 '세뱃돈'이라며 나눠주셨다"고 말했다.

흥 할머니가 투병하는 동안 성남시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남동복지회관은 치료와 안부 확인 등 신상 관리에 나섰다.

장례식장에선 상주가 돼 조문객을 맞고, 입관과 운구, 화장, 안치까지 할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할머니가 남긴 12억원 상당의 유산은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 "프랑스대사관은 아름다운 문화재"

"한국과 프랑스가 만난 문화재에서 일상을 보내고 업무를 한다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입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필립 베르투(사진) 주한 프랑스대사는 "대사관저뿐 아니라 업무동 전체가 품위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건축 작품"이라며 "프랑스와 한국, 서양과 동양의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부임과 동시에 9년간 이어진 대사관 보수 공사를 끝내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재개관했다.

1962년 완공된 이 대사관은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1887~1965)의 제자 김중업(1922~1988) 건축가가 설계했다. 그는 생전 대사관 업무동 지붕이 한옥 처마처럼 휘어진 데 대해 "한국의 얼을 담고, 프랑스다운 우아함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중업 건축가는 이 대사관 설계로 1965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다음은 베르투 대사 일문일단.

-대사관 자체가 문화재다. "손님들이 열이면 열 '와우'라고 감탄한다.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을 직접 보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건축학도들은 물론, 일반 한국 국민에게도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대사관이 위치한) 서대문구와 협력해 사전 예약 방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7월 26일 파리 여름 올림픽이 개막한다. "파리 여름 올림픽은 100년 만이다. 프랑스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1863~1937)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을 되살리자고 제창한 뒤 8회째 대회가 파리에서 열렸고, 그 뒤로 처음이다."

-양국 관계 현주소는. "2026년이 양국 수교 140주년이다.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는 문화부터 교류, 유엔 협력 등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에게 프랑스의 다양한 면모를 더 알려드리고 싶다. 명품 브랜드뿐 아니라 퀴엥(양자) 연구부터 스마트폰 부품 등 프랑스의 과학기술과 산업이 대표적이다. '메이드인프랑스'와 '메이드인코리아'의 다양한 협업이 많은 곳에서 진행 중이다. 삼성스마트폰에 프랑스 부품이 들어가고, 에어버스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주진 기자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와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렌트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와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우리말 바꾸기

‘머지않다’와 ‘멀지않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언론에서는 AI와 관련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모든 인간의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가 멀지 않은 미래에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등과 같은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머지않다’와 ‘멀지않다’가 혼재돼 쓰이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각각의 단어가 띄어 써야 한다는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멀지않다’가 바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의미할 때는 ‘머지않다’로 써야 바르다. ‘머지않다’는 주로 ‘머지않은’ ‘머지않아’ 등과 같이 활용돼 쓰인다.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돼 있는 합성어이므로, ‘머지않다’와 같이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써야 한다. 그렇다면 ‘멀지않다’는 틀린 표현으로, 무조건 ‘머지않다’로 고쳐 써야 하는 걸까.

‘멀지않다’를 무조건 ‘머지않다’로 고쳐 써서는 안 된다. ‘멀다’와 ‘않다’를 각각의 독립된 단어로 보고 띄어 쓰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뜻이 된다. 정리하자면, 시간적으로 가깝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낼 땐 ‘머지않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을 나타낼 땐 ‘멀지않다’라고 쓰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시론

보수·진보 공동의 한반도 정책 필요



스펜서 김  
PCI 공동 창립자

상황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린 생각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비록 그 방법론에 논란과 타협,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단이 수반되더라도 말이다.

한국내 진영간 합의 먼저 이룬 뒤  
정권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대결적 국제정세 속에선 더욱 절실  
통일 이끈 서독 동방정책이 교훈적

나는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위한 길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길을 가려면 보수와 진보가 공동으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대통령 또는 국회를 장악하더라도 대한민국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따를 수 있어야 한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4년마다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 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거 서독이 바로 그런 모델이다. 그들은 동방 정책을 채택한 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해도 기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약 10년 전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 한국인과 진보 진영의 관점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언가 해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공동 설립한 로스앤젤레스의 태평양세기연구소(PCI)는 주로 진보 성향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역사, 주요 현안 등을 가르치는 ‘한평 아카데미’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하나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잘 표현할 인재 양성이자.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정부, 학계, 언론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해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앞으로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또 핵 무장을 국가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의 집단적 대결이 심화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할까.

대한민국은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을 넘어서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보수와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진보가 필요하다. 한평 아카데미가 나름 그에 일조하고 있다.

스펜서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회사 CBOL Corp 대표, PCI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 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 레지던트 펠로.

디지털 세상 읽기

플러팅하는 기계



박상현  
오테레터 발행인

했다는 이야기가 쏟아진 이유가 그거였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AI가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이 굳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AI가 가진 성격은 고정된 게 아니다. 대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 인간과 대화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모두 제거된 AI가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 AI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적인 자극을 주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면 사람보다 기계와 대화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들은 많다.

그런 AI를 놔두고 굳이 불완전한 인간,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과 대화를 할 사람이 몇이나 남을까? 더 나아가 자기의 기분을 완벽하게 맞춰주고,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는 AI와의 대화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렇게 자라난 세대가 실제의 인간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까? AI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미지의 미래로 밀어가는 중이다.

오픈AI가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GPT-4o’는 사람들에게 여러 모로 큰 충격을 주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의 대화에 참여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고, 종이에 손으로 쓴 수학 문제도 차근차근 설명하며 풀어주는가 하면, 사용자가 입고 있는 옷이 업무와 관련한 발표에 적절한지에 대한 충고까지 해줬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이 모델이 가진 기능, 혹은 능력이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새 AI는 여성의 목소리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사교적인 만남에서 대화 상대에 끌린 듯한 태도로 이야기했다. 서구에서 관심 있는 남녀가 대화에 사용하는 플러팅(flirting) 말투였다. 발표 직후에 영화 ‘그녀(Her·사진)’ 속 AI가 현실에 도래

# BED BUG

## 빈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http://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skpmva@gmail.com

**571-992-5789**

##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소설 『선택』 페미니즘 비판 위해 썼다니... 너무 큰 오해였다



이문열, 시대를 쓰다(6)

## 페미니즘과의 일전

나는 반(反)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페미니즘에 저항할 논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내 오랜 소신이다. 세상이 오랫동안 남성 위주로 편성돼 여성은 그만큼 억압과 질곡에 짓눌려 오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반페미니즘 주장은 발불일 자리가 없다.

하지만 20여 년 전 소설 『선택』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나는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는 오해를 받았다. 살면서 내가 겪은 여러 오해 중 하나다. 심지어 내가 여권주의자 대부분을 성도착자로 간주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것도 평소 말 잘 통해 내가 우리 편이라고 말하곤 했던 한 여교수가 신문에 그렇게 썼다.

『선택』은 우려와 격려의 마음에서 쓴 소설이었다. 당시 남성들을 향해 성난 외침을 쏟아내는 여성 중 일부가 여성 해방과 성적인 방종을 단단히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웠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종교집단 초기의 전도열(傳道熱) 비슷한 전파열(傳播熱)마저 느껴졌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전파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소수에서 벗어나려는 다수 확보의 욕구다.

남성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자신도 노력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여인들은 반대로 응원하고 싶었다. 바깥에는 집안 자랑, 문중에는 불경(不敬)의 죄가 될 수 있음에도, 내게 작게 조상 되는 조선시대 선조-숙종 연간의 정부인(貞夫人) 장(張)씨를 내세워 본보기가 될 만한 여인상을 제시한 게 『선택』이었다.

계간 '세계의 문학' 1996년 가을호에 전체 4부 가운데 1부를 게재하자마자 페미니즘 비판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단체, 여성 독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출판사는 전화 받느라 일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한 여성 단체라는 곳은 내 아내가 전화를 받아 그러더라. "남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고.

이듬해인 1997년 3월 소설책을 내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방면의 논객들이 가세했다. 방송인 전여옥, 시인 겸 문학평론가 김정란, 고미숙 등이 한 마디씩 보탤 때



이문열씨는 소설 『선택』 출간 이후 논란이 일자 각종 대담에 솔하게 불려 나갔다. 1997년 6월 부산의 영광도서 독서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왼쪽부터 황국명 인제대 교수, 이문열씨, 정형철 부산외대 교수. [사진 영광도서]

## 1996년 발표하자 여성들 항의 빗발 역설적으로 페미니즘 확산에 기여 중앙일보 대담·칼럼 통해 해명·사과 “정부인은 매춘부” 비판 지금도 화나

이 선동적으로 시비를 붙이는 바람에 말썽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말썽이 증폭됐는지 소설책 『선택』은 출간 2주 만에 7만 부, 2개월 만에 15만 부, 그해 연말까지는 25만 부가 팔렸다.

### 첫 페미니즘 잡지 '이프' 창간

『선택』은 역설적으로 페미니즘 확산에 기여했다. 국내 첫 페미니즘 잡지 '이프(if)'가 1997년 5월 『선택』을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서 창간됐다. 온 세상이 페미니즘의 사고체계와 주장대로 진행되는 데도 중세의 마녀사냥식 페미니스트 사냥이 시작됐다는 게 창간 명분이었다.

창간 특집 안의 '예술과 폭력 사이에서 꽃피는 남근의 명상'이라는 글에서 송기원의 『여자에 관한 명상』, 내 소설 『선택』, 김원우의 『모노가미의 새 얼굴』 등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30~50대 남성 작가 네 명의 작품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 여성 필자는 내 소설의 문투를 고스란히 흉내 내 『선택』의 작가가 이문열 서생에게 "한 조선조 여인의 일갈"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지 형식으로 신기도 했다. 한낱 서생(書生)이 아닌,

문학평론가들 사이에 『선택』을 쓰게 된 내 '선택'이 다분히 정치·전략적이었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페미니즘을 못마땅해하는 상당수 보수층의 심리를 내가 간파해 냈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었던 여성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보기도 한다. 내가 관심 끌기 위해 도발

했다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이 『선택』을 썼다. 두어 가지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아내와 관계가 있다. 아내는 소설의 정부인 장씨처럼 현모양처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선택』을 쓰기 7-8년 전 마흔을 갓 넘긴 나이에 내가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허망하다고 여기는 듯했다.

### 공허함에 빠진 중년 여성 사연이 계기

또 다른 계기는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어떤 아주머니의 사연이었다. 3남매를 모두 일류대학에 보냈고, 남편도 중소기업 사업가로 자리 잡아 모든 게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경우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기만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는 아주머니가 돼 있더라는 것이었다. "당신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고, 당신 인생 남비한 거 아니다"라고 그 아주머니에게 외쳐주고 싶었다.

내 나름으로는 자신도 있었다. 거침없이 써 내려 간 글이다. 당시 나는 세상에 허점이 많은 것처럼 내 말이 빠져 나갈 구멍도 얼마든지 있다는 기분이었던 것 같다.

6월쯤이 되자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 열 통쯤으로 줄었다. 위로와 격려의 전화가 많았다. 대부분 아이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시킨 후 갑작스러운 공허에 빠진 40대 여성들이었다. 그래서 한 잡지 인터뷰에서 그런 농담

## 조선시대 현모양처 여인상 통해 변화 노력하는 여인들 격려하고 여성해방·성적방종 혼동엔 우려 삶 허무함 느낀 아내 향한 위로도

까지 했던 게 기억난다. 여성들을 상대로 내 소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면 이길 자신 있다고.

### 여성 작가들 소설 제목 활용한 건 사과

이훈과 간음을 부추기는 듯한 사례로 동료와 후배 여성 작가의 작품 제목을 소설에서 거론한 점은 일찌감치 사과했다. 1997년 4월 29일자 중앙일보 대담에서 문학평론가 권택영씨가 이훈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지는 않을 텐데 여성 작가들의 소설 제목을 활용한 것은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는 이경자의 소설 제목 '황홀한 반란'이나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그릇된 여성운동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고 여겨 빌려 쓴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 작가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깨끗하게 인정했다.

전여옥의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금도 화가 난다. 4월 24일자 조선일보 기고에서 그는 남성사회에 기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인 장씨는 매춘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4월 30일

자 동아일보에 나는 이렇게 응수했다. "정부인을 매도한 쪽은 자신의 마땅치 못한 행실이나 결혼 이력을 변호하려 다 망발의 늪으로 빠져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든다."

하지만 끝내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된 계기의 하나가 이 글 맨 앞에서 언급한 고려대 영문과 서지문 교수의 글이었다. 논쟁을 접자는 뜻에서 중앙일보에 글을 보냈다. 9월 9일자 에 나는 이렇게 썼다.

"배움 많고 사려 깊은 여성론자로부터 그 천동별거승이 전위(前衛)에 이르기까지 말의 세련됨과 논리의 치밀성에 차이는 있어도 오해에 가까운 기본 인식은 그 큰 차이가 없었다."

나는 두 가지가 아쉬웠다. 『선택』은 제목처럼 정부인 장씨의 삶을 어디까지나 선택지의 하나로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하나같이 강요로 받아들였다.

페미니즘 전체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었다. 천박하게 이해되고 추궁되는 운동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비판자들은 부분 부정과 총체적 부인을 혼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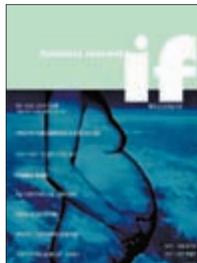
### "세상에 여자만의 문제란 없다"

『선택』을 읽지도 않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단락을 읽어주고 싶다.

"세상에 여자만의 문제란 없거나 지극히 적다. 여성이란 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남성이 있어서이고 따라서 여성의 문제란 언제나 남성과 관련된 문제를 뜻한다. 그런데 상대인 남성을 적대 개념으로 다루고 방법을 투쟁만으로 일관한다면 너희 선택의 폭은 너무 좁고 비극적이 된다. 곧 이겨서 포악한 상대를 온전히 제압하거나 저서 이전보다 더 엄혹한 예측과 굴종 속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 더 있다면 남녀의 철저한 결별로 인류사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 정도일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진 모든 것은 저마다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바탕을 이루는 일이 되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출산의 가치를 부인하는 천만 가지 교묘한 논리를 대적할 수 있다. 세상을 있게 하는 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매기고 뜻을 주고 값을 셈하는 존재를 만드는 일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더 있겠는가?"

올해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들었다. 참말인가 싶다. 기가 막힌다.



이문열의 소설 『선택』이 촉발한 논쟁이 확산되면서 1997년 5월 첫 페미니즘 잡지 '이프(if)'가 창간됐다. 창간호를 그대로 복원한 2017년 소장판 표지(왼쪽 사진). 문학평론가 권택영씨와 이문열씨의 대담을 소개한 중앙일보 1997년 4월 29일자 지면. [중앙포토]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http://www.naturadent.net)



[www.GIANTREALTY.com](http://www.GIANTREALTY.com)

#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mailto: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시 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 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반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조차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정책 혼선 되풀이... 현장여론 수렴, 공론화가 먼저

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빛 수령'에 사장이 인상 읊소...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요금 인상을 읊소하고 나섰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빛 수령'에 빠진 탓이다. 정치 논리에 휩싸인 '가격 포폴리즘'으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미 만신창이다. 빛으로 버티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요금 정상화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이자 비용 급증과 국제유가 및 환율 불안 속 벼랑 끝에 선 심장"이라고 말했다. 동절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의 원가 보상은 74% 수준이다.

이런 역마진 구조가 장기화하며 올해 1분기 미수금(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13조5000억원이다. 부족한 돈은 공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한다. 미수금 증가가 금융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미 이자 비용으로만 매일 47억원이 나간다.

빛 수령에 빠진 곳은 가스공사만이 아니다. 한전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 매년 수조원씩 이익을 냈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와 '전기요금 포폴리즘'으로 43조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만 203조원으

로, 연간 이자 비용만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6일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후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물가도 들쭉이며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을 커지고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특히 냉방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물가와 가계 및 기업 부담을 앞세워 국제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에너지 요금을 강요하며 막대하고 심각한 부실을 이어갈 수는 없다. 과도하게 억누른 전기와 가스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도 막아야 할 때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은 전력망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및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이들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세금으로 국가가 보전할 수밖에 없다. 적자를 견디지 못한 EDF(프랑스전력공사) 지분 100%를 국유화한 프랑스의 사례가 날이 아니다. 요금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정부는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밝히고,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 계층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요금 결정권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넘기는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김현기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1 라인야후 사태를 "일본에 뒤통수 맞았다"고 보는 시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먼저 틀린 점. 어쨌든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5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일본 총무성의 음모하에 착착 진행된 게 아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21년도 유사한 정보 유출 구멍이 발견됐다. 당시에도 일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행정 지도'를 내렸다. 일 총무성 입장에서 이제 개선됐는지 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지니 자신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반대로 일본의 야욕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 비판한다. 일 정부가 열반아 내진검에 이례적인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엮어 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태의 앞뒤는 제대로 분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맞는 점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네이버의 뒤통수를 쳤다는 점이다. 난 이데자와 라인야후 최고경영자의 다음 발언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응축돼 있다고 본다.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대전제다. 손 마사요시(손정의 일본명) 회장이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이니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정의의 라인 접수장기 전략은 교묘하고 은밀했다. 손정의는 돈을 우선하는 일본인이지만, 뿌리를 우선하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웬걸, "손정의는 한국 편"이라 접고 들어간다. 사태의 책임을 손정의 아닌 일 정부 탓으로만 묻는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착각이다. 거기서 부조화가 일어났다. 손 회장의 최측근인 오쓰키 전 비서실장이 최근 한 중간지에 털어놓은 에피소드는 인상적이다. "모시는 동안 손 회장이 가장 기뻐했던 때는 언제였나"(질문자), "(손정의 회장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을 때다. 국적을 취득하고 막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의 환한 미소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오쓰키). 손 회장을 일부러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 착각해선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시사한다.

#2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의 전형을 정치 쪽에서 보여준 게 얼마 전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 회고록이다. 몇 가지만 열거한다. 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배었다. ② 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전으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놀라웠다. ③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진심이였다. 김 위원장이 "딸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④ 유엔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개선에 '애로' '장벽'이 됐다. 답답하고 아쉽고 화도 난다. 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 마할 단독 방문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하나하나 모두가 충격적이고 아찔하다. 이 분은 과연 어디를 보고 이 나라를 다스렸단 말인가. 각각의 항목에 이렇게 묻는다. ①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북형

문 전 대통령의 '멘털 갭' 어이없어 우리 사회 퍼진 눈치·염치 불감증 후진 정치·연예인 '국민지도' 필요

을 독살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게 '예의' '존중'이 맞는 표현일까. ② 포격 주변(김정은)에게 연평도 포격에 대한 항의는 한마디라도 했는가. ③ 열 살배기 딸을 미사일 시험발사장으로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나. ④ 거꾸로 자신의 북한 집착이 북한의 비핵화에 애로와 장벽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⑤ 그냥 부인 자랑은 집에서만 단독으로 하시면 안 되는지.

우리 사회엔 정말 이런 '멘털 갭'이 많다. 말이 좋아 그렇지 철면피, 후안무치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증거인멸까지 한 트로트 가수는 공연 위약금을 걱정하며 관객 앞에 계속 선다고 한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몰상식이 이를 부추긴다. 그리고 보면 요즘 정치권도 다를 게 없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숙하기는커녕 한 달 조금 지나 "민심이 원한다"며 스멀스멀 재등장할 타이밍만 엿보는 정치인도 있다. 참으로 후졌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이제 우리 국민도 그런 눈치도, 염치도 없는 이들에게 따끔한 '국민지도'를 내보일 때가 됐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자재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가정)에 대해서는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유심 판매 \$45  
유심칩 판매 \$50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드립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없이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2차 6/18-6/28 (영어가이드)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옴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연합상품

-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일출발**
-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 3박 4일 **동경** \$999+항공
-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왓포사원, 플로세움소,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결박사원, 꼬끼리 트래킹, 약어농장, 백만년버우공원, 대곡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팡미안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할롱 사원, 꼬끼리 트래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월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후계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혈곡, 화원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호춘, 아류해양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원더스, 헨더스웨이 브릿지, 허자레인, 부기스캐시앙, 마리아안공원, 차이타온, 센토사섬, 실로소버티

**메모리얼 데이 특선**

**나이아가라 워터스글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여행!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레지워스 국립공원 북아메리카 최대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안개수축 포함)  
2박 3일 5/25~5/27 \$650

**뉴욕 특선**  
업그레이드 된 디럭스 호텔, 브루클린 명소, 배스 허드슨 아드, 옛지 전망대  
1박 2일 5/26~5/27 \$450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라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출발**  
대행버스출발: 6/24, 7/22, 8/5

**뉴욕** 동부명승객만 발송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출발**  
대행버스출발: 7/22, 9/16, 10/7

**뉴욕**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 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출발**  
대행버스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출발**

**성극 대니엘** \$199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1박 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엘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61탄**



**MAY 23rd - MAY 27th, 2024**

심심하고 맛있는 자연 비타민!

# 빨간햇체리 달콤한햇세일

RED CHERRY SWEET SPECIAL

5월 23(목)-  
5월 27일(월)  
딱, 5일간  
빅찬스

**빨간햇체리**  
Red Cherry (New Crop)  
~~\$3.99~~ **\$0.99**  
LB

편집증 오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GRAND OPENING  
Richmond, VA  
71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arling, VA  
30 Pigeon Hill Dr. Starling,  
VA 2016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ersba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0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00 Ede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4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8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102 Vi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y 23,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이사짐은 품목별 아닌 방별로 싸라

**이사 준비, 짐정리 이렇게** 본격적인 이사 철이 다가왔다. 전학, 이직 혹은 새로운 은퇴 라이프를 시작하기 위해 남가주 내에서 혹은 타주로도 이사를 계획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한국이나 타국으로 이사를 준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한다는 설렘 뒷편에는 늘 스트레스가 따르게 마련이다. 마땅한 이사짐 업체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짐을 싸고 푸는 일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짐을 사고파는 일보다 훨씬 더 노동집약적이고 정신적으로도 골치 아픈 일이 바로 이사짐이다. 그러나 조금만 요령을 익히면 누구나 '이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이사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효과적으로 이사짐 싸는 법과 이사 전후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봤다.

## 이사짐업체 예약 1~2달전 마쳐야 이사 전 주소지 변경 신청은 필수

**▶이사짐업체 예약** 이사짐센터 예약은 최소 한 달 혹은 두 달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다. 만약 타주나 한국처럼 해외 이주인 경우엔 적어도 석 달 전 예약을 끝내야 원하는 날짜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할 수 있다. 이사짐센터 선정은 적어도 3곳 이상 알아보는 것이 좋는데 견적 요청은 물론 보험 적용 범위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사짐센터를 결정하는 데는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격 외에도 이사 경험이 풍부한지, 꼼꼼하게 이사를 도와주는지 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ATA(www.trucking.org)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인증받은 운송업체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다. 또 연방자동차 안전국 사이트(ai.fmcsa.dot.gov)를 방문하면 이사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어 업체 평판도 조회할 수 있다.

**▶물건 버리기** 일단 짐을 싸기 전 버려야 할 것들부터 분류하고 폐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옷장부터 주방 캐비닛, 차고 등 모든 공간을 살펴보고 버려야 할 것들을 정리하자. 오래된 옷, 장난감, 주방용품 등을 버려야 새집의 한정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은퇴 후 집을 줄여 이사할 계획이라면 더더욱이 물건 버리기는 이사짐 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때 전자제품이나 덩치가 큰 가구들은 시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운반할 물건들이 줄어들면 이사 비용도 줄어 일석이조다.

**▶방별로 짐싸기** 짐을 쌀 때는 새 집에서 짐을 푸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야 한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방별로 짐을 싸는 것. 방별로 정리한 박스를 이사간 집 방마다 옮겨 짐을 풀면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만약 옷이라고 해서 자녀와 부부 옷가지를 한꺼번에 한 박스



이사짐을 쌀 때는 한 박스에 너무 많은 물건을 무겁게 채우기보다는 가능한 가볍게 포장하는 것이 운반 시 편리하다. (Unsplash.com 캡처)

에 포장하면 나중에 옷더미를 들고 방방마다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스 포장** 박스 수를 줄이겠다고 박스를 콕콕 채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박스가 무거워지면 박스를 들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박스를 떨어뜨려 내용물이 파손되는 위험도 발생한다. 또 박스 포장 후에는 반드시 박스 내용물과 어느 방으로 옮겨야 하는지도 사인펜으로 적어두면 편리하다. 만약 이사 갈 집이 2층 집이라면 박스마다 1층과 2층도 나눠서 표기해 두면 짐을 옮길 때 용이하다. 그리고 컴퓨터나 TV 등과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구입 시 따라온 박스를 이용해 싸면 보다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박스에는 가전제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스티로폼이 포함되어 있어 도움이 된다.

**▶미리 옮기기** 만약 이사 가는 곳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면 이사 전부터 조금씩 짐을 옮겨놓으면 이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책이나 주방용품, 귀중품, 옷, 장식품 등 운반 시 주의가 필요하거나 깨지기 쉬운 제품들이 포함된다. 이주권 객원기자

▶8면 '이사'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b>버지니아 상가건물</b>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대 5개 연순수익 \$218,000	<b>디시 유명 델리</b>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버블티 가게</b>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판매가 36만불	<b>Beer &amp; Wine Shop</b>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b>식당 자리</b>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b>창고</b>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 임대 9000 SF 현트, 버지니아	<b>사무실</b> 애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b>상가</b>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b>Beer &amp; Wine Shop</b>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	<b>식당 자리</b> 5500 SF, 임대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b>사무실</b> 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	<b>상가</b>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b>콘도</b>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뱅크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b>식당자리 제과점 건물매매</b>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맥클린

**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직

# 자산 40% 증발시킬 기후 재난 '대세주' 반도체도 안심 못한다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 올라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 1.5도를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전 세계에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했지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해 미국이 기후 관련 재해로 929억 달러(약 127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날이 더우면 경제도 주저앉는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존 작물들의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리노이대 연구에 따르면 일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에서 1도 오를 때마다 평균 생산성이 1.7% 하락한다. 즉각적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후 변화는 투자 대상의 가격을 예고없이 올리고 내린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머서는 '40년 후 기후 리스크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40%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증시에 투자한 자산·업종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글로벌 컨설팅기업 머서가 분석한 구체적인 영향을 짚어보자. 이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낙관적 시나리오(2050년까지 기온 1.5도 상승)일 때, 비관적 시나리오(2100년까지 기온 4도 이상 상승)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녹색 경제로 가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주식 가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주식 가치가 초반엔 올라가다 10~15년 이내에 급락기를 맞고, 40년 뒤엔 자산 가치가 기본 시나리오 대비 40%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리스크 피해가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국은 2060년까지 세계 25개국 중 캐나다, 러시아만이 기후 변화로 국내총생산(GDP)에 긍정적 효과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는 날씨가 온화해져 오히려 관광수요가 늘어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 러시아 역시 기후 상승으로 사망률이 줄어들어 총생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인도는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며 GDP가 4% 이상 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평균기온 상승으로 2035년까지 식량 가격은 연평균 0.9~3.2%씩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작물로는 코코아·올리브오일·쌀·대두·감자가 꼽힌다. 실제 네슬레와 허쉬는 코코아 가격 급등에 주가가 1년 사이 각각 20.3%, 27.9% 추락했다.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폭풍과 해일, 조석 변화를 동반한다. 인간이 쓸

수 있는 땅이 줄어들다는 의미다. 특히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편차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보험 컨설팅기업 밀리만은 홍수 위험이 제대로 평가될 경우, 미국 주택 소유자 약 350만 명의 부동산 가치가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봤다. 미국 단독주택 시장에서 약 5200억 달러(약 714조원)가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에너지 수요는 시나리오별로 전망이 크게 달라진다.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010~2060년 사이 세계 냉방 전력 수요는 250%, 난방 전력 수요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해질 경우 냉방 전력 수요는 330% 급증하는 반면, 난방 수요 증가는 16%에 그친다. 특히 가정 냉방 수요가 전체 냉방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까지(2060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메모리얼 대학은 올 초 강수량 변화가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결과를 내놨다. 반도체는 웨이퍼 제작과 오염물질 제거, 냉각에 대량의 물을 쓰는 등 물 집약적인 산업이다. 연구팀은 2030~2040년 동안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기존 시설의 40%, 건설 중인 시설의 24~40%가 심각한 물 부족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일례로 미국은 애리조나·아이다호·텍사스에 들어선 반도체 기업(인텔·TSMC·마이크론·삼성)이 물 부족 고위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기후 변화 관련 주식투자 상품을 보자. 국내 패시브 상장지수펀드(ETF) 중엔 KRX 기후변화솔루션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5개로 가장 많다. 기후변화솔루션 지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저탄소전환(LCT) 카테고리상 '솔루션즈'로 분류된 기업과, 저탄소 특허점수 상위 2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MSCI는 LCT 카테고리 기업의 저탄소 잠재력에 따라 솔루션·중립·운영전환·제품전환·좌초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중 솔루션즈는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의 성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통신 유틸리티나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속한다.

저탄소 특허점수는 MSCI가 전 세계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정량화한 점수로, 국내에선 삼성SDI·현대차·LG케미칼 등이 상위 15위권 내에 들어가 있다. 'KODEX KRX기후변화솔루션'의 경우 SK하이닉스(9.36%), 삼성전자(7.99%), 삼성SDI(7%)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거래소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함께 개발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도 국내에 3개 출시돼 있다. 구성 종목 비중은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 탄소배출 정보 공개 여부, 기후정보 공시 여부 등에 따라 산출한다.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 비중이 약 30%로 압도적이다.

기후 변화 분야는 액티브 ETF를 추천하는 전문가가 유난히 많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기후 변화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패시브 ETF는 전환 리스크를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액티브 ETF에는 'KoAct 글로벌기후테크인프라액티브'가 있다. 이 상품은 기후테크 인프라 산업 관련 키워드를 선정, 필터링해 종목을 구성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해 최종 종목과 비중을 조정한다. 순자산가치는 177억원, 최근 1년 수익률은 29.68%로 패시브에 비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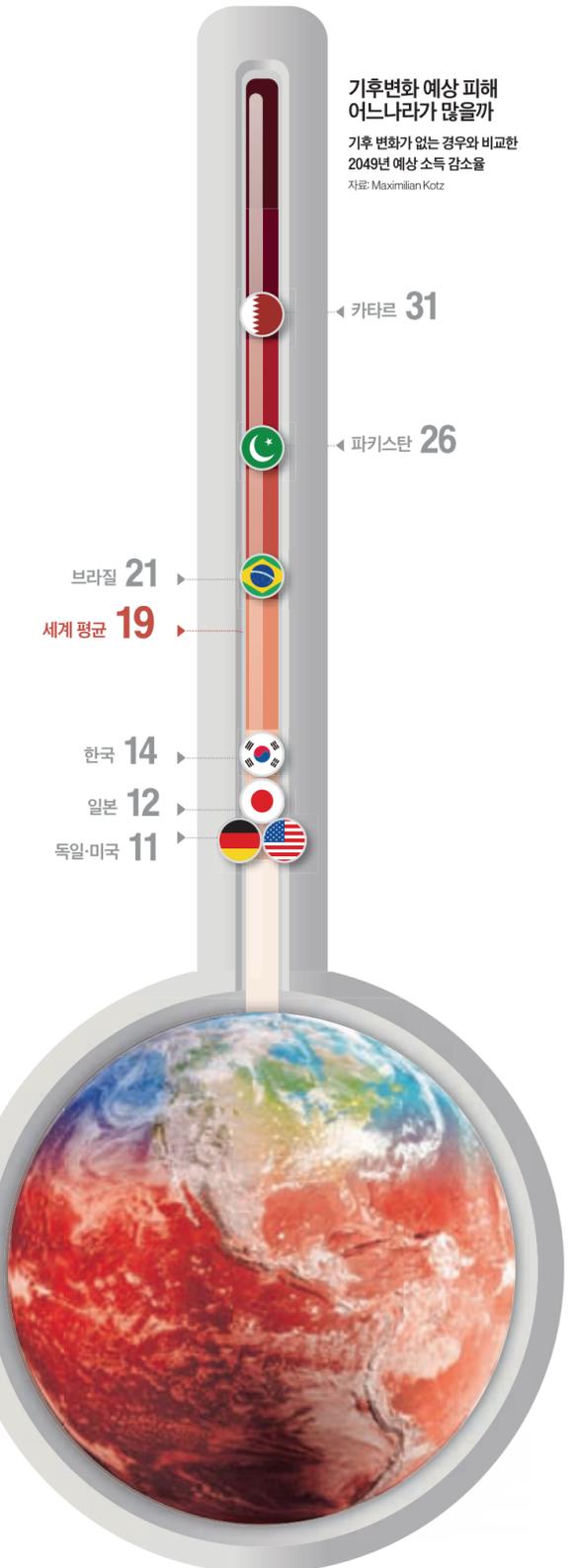
'타임폴리오 탄소중립액티브'의 일부는 KRX기후변화솔루션 지수를 추종하고, 일부는 액티브로 운영하는 ETF다. 액티브의 경우 기후 변화 관련 특허 보유 기업 중 기술력 점수(TSS) 상위 50% 이내 기업 및 한국ESG기준원 환경등급 D를 제외한 기업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 추정치가 상위 50% 이내에 속하는 종목을 선정해 구성 종목을 짚는다. 순자산가치는 83억원, 최근 1년 수익률은 16.65%다.

이병준 기자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돈이 되는 '메-랩'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NGFS 시나리오 Current Policies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후변화 예상 피해 어느나라가 많을까  
기후 변화가 없는 경우와 비교한 2049년 예상 소득 감소율  
자료: Maximilian Kotz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주택 공시가격은 왜 고무줄인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야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내세운 '윈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일이 있었다. 서울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2018년 15억원이었던 공시가격이 40억원으로 오른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일 년 사이에 내 집 값이 그렇게 뛰었다는 말인가. 소유주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책당국은 단 열흘 만에 공시가격을 30억원으로 깎아서 확정했다. '고무줄 공시가격'이다. 명쾌한 기준을 갖고 만들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정책적으로' 개입한 결과이다. 부동산가격 공시법에는 분명, 공시가격이 시장수준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법률 위반'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라픽=김주원 기자

정평가, 그보다 적은 주택에는 비용 문제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주택공시가격의 비감정평가 산정수수료가 더 비싸다. 감정평가를 하자는 것은 해당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다.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이제라도 '정책목적가격'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수준을 제대로 포착하고 그것을 그대로 공표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여야 한다. 시세를 69% 반영하다가 100%가 되면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걱정에 뒷걸음질해서는 안 된다.

세금 부담이 걱정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의 60%에서 30%로 낮추면 된다. 미국 캔자스주처럼 11.5%로 해도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에서 그 범위를 정한다. 논쟁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에 맡기되, 공시가격은 시장수준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3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고무줄 공시가격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날뛰는 공시가격'으로 우리 사회가 겪었던 고통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공시가격이 정책목적가격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수준을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확정하자. 그것이 공시가격을 정치 논리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수연=공시가격 제도와 감정평가, 부동산 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해왔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 제 국도보유세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정책인가』 등을 저술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 시세반영률, 천차만별 정책가격 아닌 시장가치 돼야 세금은 다른 비율로 조정 가능

시가 가격 로드맵이 발표될 때 시세반영률이 69%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평균치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다르고, 유형별로 다르고, 심지어 주택마다 다르다.

공시가격은 정치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공시가격의 근간이 되는 '적정가격'의 해석을 사실상 정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법률에 '공시가격은 개념상 적정가격인데 시장을 반영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적정가격은 정책목적가격이라 시장수준과 괴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퍼져나갔다.

이를 인정하면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정부의 의중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유화책을 쓴다면 경기침체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었다면 공시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정부의 지시만 기다리게 된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조는 공시가격에 대해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5항은 '적정가격'을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한다.

이 적정가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미국에선 법령 등에 공시가격의 근원이 되는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핵심은 시장가치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이므로 호환기의 거품 가격으로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가치는 실거래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

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만 의존해 만들면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신고가' 소식이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서울 전체가 아직은 침체 상태이고, 내 집은 오르지 않았는데 특이한 거래 하나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조세 형평성의 기본은 납세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거래가 많은 지역의 납세자와 거래가 없는 지역의 납세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주는 감정평가 방식을 채택한다.

## 미국은 공시가격에 감정평가 기법 사용

한국은 토지는 공시지가 고시를 위해 감정평가를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 자료 위주로 산정을 한다. 감정평가는 전문 서비사 수수료가 비싸서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국내 토지는 3900만 필지이고 주택은 1869만 가구이다. 숫자가 많은 토지에는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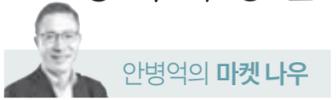
## 누더기법 개정에 공시가격 개념 불일치

정부는 이런 논란을 피하려 2020년 4월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문을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삽입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은 '시장수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공시가격'이라고 1조에 규정하고, 26조의 2에는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것이 공시가격이라는 자기 모순적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의 개입은 1989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때부터 있던 '관행'이다. 당시 정부도 법률에 따라 시장수준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납세자의 반발이 격정됐다. 재산세로 직결되는 공시가격이 너무 높으면 반발이 정부로 향할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 후 공시가격은 암묵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작성됐다.

물론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시세를 100% 반영한 '주택산정가격'과 '토지의 세평가격(世評價格·감정평가 가격)'자료가 들어있다.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2020년 11월 공

# 중국이 공들이는 '유럽의 약한 고리' 헝가리



안병익의 마켓 나우

"헝가리의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5~10일 유럽을 순방했다. 8~9일 헝가리 공식 방문이 마지막 일정이었다. 시 주석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친중·친러 외교정책을 실행 중이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르반은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화 협정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화답했

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전후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오르반과 합의했다.

두 나라는 2017년부터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 '신시대'와 '전전후'를 추가해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것. 중국 기준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파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외교관계다.

5년 만에 유럽을 순방한 시 주석은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인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헝가리를 방문했다. 헝가리가

유럽에서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속한 헝가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았고 러시아 원유를 계속 수입 중이다.

지난 2월 EU는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3조 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헝가리는 거의 반년을 반대하다가 막판에 겨우 합의해줬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EU는 회원국의 법치주의 준수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

격적으로 지지해온 오르반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내 정책 때문에 EU와 대립해왔다. 2010년부터 총리로 재직 중인 그는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고, 친정부 기업들의 언론사 인수 후유해 비판적인 언론 장악에 나섰다. EU는 헝가리의 법치주의 위반을 이유로 EU 예산 지원 일부를 동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이 헝가리 때문에 장기막 하자 보류했던 300억 유로의 예산 중 3분의 1을 지원했다.

인구 970만 명의 헝가리는 EU의 외교안보정책이 만장일치제로 작동하기에 자신의 반대 의견을 무기 삼아 EU의 단합을 저해해왔다. 하필 올 하반기

헝가리는 EU의 순회의장국이다. 순회의장국은 유럽사회 상임의장과 함께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강화되는 시점에서 헝가리가 어떻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1년 전 '헝가리가 순회의장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EU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결의안까지 통과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고 대안이 없기에 헝가리는 오는 7월부터 반 년간 순회의장국이 된다. 더 강력하고 신속해져야 할 EU의 대러시아 정책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리프턴 싱글홈
<b>\$1,110,000</b>	<b>\$426,000</b>	<b>\$580,000</b>	<b>\$840,000</b>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호남 최초 코스트코 생기는 익산... 대전 '원정 쇼핑' 해소되나

(회원제 참고형 할인매장)

익산시와 점포 개점 투자협약  
800억 들여 2026년 개점 목표  
일자리·인구증가 등 경제 활성화



호남지역 최초로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설 예정인 전북 익산시 왕궁면 부지를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설 연휴 전에 문을 여는 게 목표다. [사진 익산시]

미국계 '유통 공룡'인 코스트코가 익산에 호남권 최초로 매장을 내기로 하면서 전북이 들썩이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회원제 참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코리아와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맺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익산 왕궁면 3만7000㎡ 부지에 800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이르면 2026년 설 연휴 전에 문을 여는 게 목표다.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설 왕궁면 일대는 백제 왕궁박물관·왕궁리 5층석탑(국보 289호)이 있는 왕궁리 유적지를 비롯해 왕궁보석단지테마파크 등이 있다.

코스트코 유치까지 우여곡절도 겪었다. 왕궁 물류단지에 입점을 추진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해 1월

25일 사업 시행사인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코스트코 측은 2021년 12월 300억원을 들여 왕궁 물류단지 내 5만㎡ 부지에 2023년까지 입점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이 2022년 말까지 마치고

한 행정 절차와 부지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코스트코 측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계약을 접었다.

이후 완주군·임실군 등 도내 다른 지자체들이 코스트코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인 왕궁면 일대를 대체 부지로

제시했다. 호남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접해 전북뿐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30억원가량 투자 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투자금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물류 도소매업에도 투자금 5%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난해 9월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를 만나 설득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워싱턴주 코스트코 세계 본사를 방문해 익산 입점에 힘을 실었다.

호남지역 대형 쇼핑몰 조성은 지난 대선 때 '뜨거운 감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냐"라며 "이 유지를 누가 반대하냐. 민주당이 반대해오지 않았냐"라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코스트코 매장은 1994년 서울 양평동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8개가 운영 중이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전북 등에서 코스트코를 이용하려면 대전·세종까지 이른바 '원정 쇼핑'을 가야했다. 전북에선 7~8년 전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를 개발하면서 코스트코 입점설이 돌았으나, 소상공인 피해 등을 우려한 전주시 반대로 백지화됐다.

익산시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정규직 일자리 200여개 창출, 인구·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율 시장은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주민 편익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과 지역 우수 제품 입점 등을 담은 상생 협약을 코스트코 측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 서울 빌라 전세가 다시 꿈틀... 정부는 '126%룰' 손질 검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평가방식)



한강에 생기는 세계 첫 다리 위 호텔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다리 위 전망 호텔'이 생긴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있던 '직녀카페'를 스위트룸급 호텔로 리모델링해 오는 7월 16일 문 연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강대교 전망호텔 침실과 외부모습. [연합뉴스]

한동안 하락했던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빌라 기피 등으로 매매값이 하락했지만, 전셋값이 소폭 상승한 영향이다. 빌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전셋값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시 전·월세 정보포방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71.1%로 지난해 말 68.5%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강서구의 경우 전세가율이 80.1%로 1월(77.1%)과 2월(79.1%)보다 상승했다. 2022년 90%를 웃돌았던 강서구 빌라 전세가율은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해 말까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반등했다. 전셋값이 소폭 상승했는데, 매매값은 하락한 영향이다.

강서구가 속한 서울 서남권 빌라 전세가율지수는 지난 3월 94.6으로, 2월보다는 0.02% 올랐다. 서남권 빌라 전셋값은 지난해 10월부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통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을 '강통전세'로 부른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

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전셋값 하락세는 진정국면을 보이지만,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는 건 '강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전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빌라에서 이동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52주 연속 오르며 지난해 5월부터 1년째 상승하고 있다.

현재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도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보증 한도가 더욱 줄었다. 집주인들은 줄어든 보증 한도에 따라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을 때 기존보다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당혹한다. 하지만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를 활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26% 이하'를 적용하는 것보다 보증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다소 줄게 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가 많아지면서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얼어붙었던 빌라 전세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 수 있다. 다만, 보증 한도를 높일 경우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선 보증 가입 한도가 전세 시세처럼 작용하는데, 이를 올릴 경우 빌라 전셋값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가율도 상승해 '강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콘도 (타운홈타입 3층짜리)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 DTI (Debt-to-Income) Ratio

본격적인 고이자 시대의 장기화 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높아진 이자율로 인한 페이먼트 부담의 증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하소연은 사그라들기 보다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는 급격하게 또 빠른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고금리의 지속이 예상보다 장기화 되지 않을까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실 모기지 페이먼트도 오르게 되고 그만큼 오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따라 같은 용자금액을 승인 받는 데도 결국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소득이 요구되는 당연한 이치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실 용자금액 50만불 기준으로 이자율이 0.5%만 차이가 나더라도 당장 한달 납부할 페이먼트에서 차이가 \$166정도 나게 되니 말이다. 해서 요즘같이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이들이 금급해할것이다. 예상처럼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으니 기대보다 높은 이자율에 따른 페이먼트때문에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용자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그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복잡해지리라.

지금 당장 주택구입 계획을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년 이후를 계획하고 있다면 특히나 그러한 걱정은 더 클 수 밖에 없을것이다. 곧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자율이 예상보다 조금까지 낮아지고 있는 걸 보면 장기화를 이제 대비해야 하는게 아닌가 판단될것이다.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대와는 달리 낮은 이자율에 기대감을 이제 버리고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주택용자심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인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Ratio)을 통해 아주 간단히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용자를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부동산 가격 및 모기지 예상페이먼트 등의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매달 내가 내게 되는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대략 역추산 해볼 수 있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용자가 나올까 하는 간단한 자체 판단법은 바로 소득대비부채비율(DTI 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통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용자금액은 바로 나의 소득 그리고 나의 부채 상황에 따라 판가름난다.

크레딧만 좋으면 쉽게 용자를 얻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내가 얻고자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소득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는지를 통해서 심사를 한게 된다. 즉,

매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50% 미만으로 매달 지출하는 모든 이자가 포함되는 비용(모기지 예상페이먼트, 자동차 용자 할부금, 학자금 대출 크레딧 카드 최소 페이먼트 등)이 들어야 그 만큼의 용자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주택용자심사에 적용되는 소득대비부채비율의 최대치가 바로 50%이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 스스로가 매달 지출하는 이러한 비용들의 총합계를 두배이상 넘어서는 소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주택용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의 용자가능여부를 아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간단히 이 정도의 자가 진단은 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문의: 703-868-7147

## 주택 보험

지난해 스테이트팜이나 올스테이트 같은 대형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보험을 들어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스테이트팜 보험 회사가 7월부터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된 약 7만2000명의 건물 보험의 갱신을 아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집 보험 서비스 사업을 캘리포니아에서 더는 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뜻이다. 기후 변화로 산불 및 홍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이에 보상 비용이 하늘 높을지 모르고 치솟기 때문이다.

메이저 회사의 보험 철수는 주택 보험을 들어야 하는 집주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펜데믹 이후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고 수리비도 덩달아 올라 연쇄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자들은 이래저래 보험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다른 회사들도 이에 따라 철수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험을 들 수 있는 선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올스테이트, 파머스, 트리플에이, USAA같은 회사들도 새 보험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 서비스도 어렵게 하고 있다. 4월에는 일본 기업인 도쿄머린 아메리카 보험사와 트랜스 퍼시픽 보험회사도 주택 보험 서비스를 중단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위험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이 약 200만 채가 넘고 산불 나

는 기간도 일 년의 반 정도 이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가까운 트래시장을 노리는 작은 회사를 찾아서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 금액이 무려 50%에서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특히 산불 고위험 지역이라 일반 보험을 들어 주지 않을 때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 가입하고 별도로 상해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셋째, 대형 메이저 회사가 철수하는 바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 경우 커버리지나 디덕터블에 대한 정보를 전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 당국은 이른바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 정책을 마련하고 떠나간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비를 합리적으로 인상해서 고위험의 캘리포니아에서도 보험 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다. 올해 말에 이 개혁 정책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정책이 떠나간 보험회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지 많은 주택소유자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인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맞은 보험을 찾고 가입을 해서 여러 재해에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 매매 수수료의 변경

주택자금대출 즉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열기가 식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다. 현장에서 살펴봐도 현재 꾸준히 활동 중인 에이전트의 숫자는 몇 년 전 부동산시장 활황기의 총 에이전트 숫자에 비하면 20%도 되지 않는 것 같다. 마땅히 고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고, 에이전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광고비와 협회비 등 기초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물론 현재는 숫자가 줄었지만,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또 많은 에이전트가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

주택소유주 대비 에이전트의 비율로 보면 에이전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실제적인 수요에 비해서 그 수가 많은 까닭은 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즉 커미션이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만 7월부터 부동산 커미션의 지급 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1980년대 이후 2024년 5월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셀러 브로커 몫이든 바이어 브로커 몫이든 양쪽 다 모두 셀러가 지불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관행이 집을 팔고자 하는 셀러들에게 과도한 경비 부담을 준다고 하여 셀러 단체 등에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셀러 단체와 부동산협회 및 대형 부동산 회사와 합의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셀러는 셀러 측 브로커 커미션만 지불하도록 하고 바이어 브로커 몫은 셀러의 자비에 맡기도록 했다.

물론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셀러 브로커 커미션은 셀러가 지불하고 바이어 브로커 커미

션은 바이어가 지불하게 되는 수익자 비용부담 즉 이익을 얻는 쪽이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 진작에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 방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동산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입 에이전트와 시작한 지 2-3년 정도 되는 신참 에이전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다. 부동산을 시작한 지 7-10년이 넘는 중견 에이전트들은 그동안 집을 찾는 새로운 고객들에게 주택을 안내하는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매매를 도와드리고 그 고객을 고정 단골 두게 된다. 이후 그 고객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 주택을 다시 팔고자 할 때는 다시 셀러의 에이전트 즉 리스팅 에이전트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 별 걱정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바이어를 처음 맞이하는 신입 혹은 신참 에이전트들에게는 바이어들이 찾는 주택을 찾아드리고 매매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커미션은 예전처럼 셀러가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 측에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따라 바이어 측은 예전에는 부동산 커미션 지불에 대한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주택구매를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는 구매가격의 2.5~3.0%에 해당하는 부동산 커미션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당연히 바이어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매력도 상당 수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바이어들의 주택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는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로 인하여 이미 어려워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후원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b>Bowie</b> \$639,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b>Edgewater</b>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b>Rockville</b> \$280,000 콘도	 <b>Perry Hall</b> 싱글홈, 방3, 화2.5	 <b>Ellicott City</b> \$689,000 싱글홈, 렌치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
 <b>Cooksville</b>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b>Columbia</b> 싱글홈, 방4, 화2	 <b>Ellicott City</b>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b>Rockville</b> \$520,000 싱글홈, 방4, 화2	 <b>Cockeysville</b> \$449,000 싱글홈, 방4, 화2.5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b>Elkridge</b>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b>Hanover</b>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b>Germantown</b>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b>Glen Burnie</b> 월 \$1,750 콘도, 방2, 화1	 <b>Hanover</b>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b>Odenton</b>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 53년 전 젊은 최불암 연구했다, 파~하 웃음소리까지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카리스마·인간미·코믹 캐릭터까지 최불암에 누 안되게 사명감 연기 고민한 흔적 많아 좋다 칭찬 받아"

"최불암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한 사명감으로 연기에 임했다."

'수사반장 1958'(MBC)에서 주인공 박영한 형사를 연기한 배우 이제훈(40)은 "최불암의 모든 면모를 캐릭터로 확장하겠다는 각오로 연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종영한 '수사반장 1958'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영한 '수사반장'의 프리퀄(시간상으로 앞선 이야기)을 보여주는 속편으로, 원작에서 배우 최불암이 연기했던 박영한 형사가 서울에 부임한 1958년을 배경으로 한다. 첫 회 시청률 10.1%(닐슨, 전국)로 출발한 드라마는 10회 시청률 10.6%로 종영했다. 이제훈은 종남경찰서 베테랑 형사로 성장해가는 청년 박영한을 연기했다.

20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그는 의욕이 앞섰던 기획 초반과 달리 "정작 대본을 받고 나선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오리지널 박영한을 '복사본처럼 따라 하자'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준비했다. 막상 연기하다 보니 헛도는 느낌이 들었고, 최불암 선생님과 외적으로 크게 닮지도 않았는데 그저 따라 한다고 납득할 만한 연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최불암'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 한다. "선생님은 '수사반장'에서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MBC, 1997~98)에선 인자하면서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캐릭터를 표현했다. 과거 '최불암 시리즈'의 코믹한 모습부터 광고, 그리고 요즘 진행하는 '한국인의 밥상'(KBS)까지 선생님



35년 만에 프리퀄로 제작된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 배우 이제훈은 원작에서 최불암이 연기했던 종남경찰서 형사 박영한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다. [사진 MBC]



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자연스럽게 청년 박영한으로 연결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최불암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파~하!'하는 웃음소리를 이제훈 버전으로 소화했고, 요즘 드라마에선 담기 어려운 흡연 연기는 눈빛으로 대체해 표현했다.

이제훈의 연기를 본 최불암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제훈은 "선생님이 '고민한 흔적이 많아서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덕분에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박영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만큼 감정과 화가 많이 담긴 모습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주셨

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 초반에는 거칠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박영한 모습을 표현했고, 극중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만들어갔다"고 했다.

드라마에는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권력형 범죄부터 사이코패스와 촉법소년 범죄, 옥수수 가루에 톱밥을 섞어 판매하는 사기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이 등장했다. 이제훈은 "드라마 배경이 되는 1950~60년대에서 60~70년이 흘렀지만, 현재와 동떨어진 사건들이 아닌 것 같아 소름 돋으면서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드라마 '시그널'(tvN), '모범택시 1·2'(SBS) 등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캐릭터를 주로 맡아온 그는 "이러한 작품들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시청자의 니즈(수요)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며 "히어로(영웅)든 악인이든, 아니면 구별이 안 가는 아이러니한 인물이든 연기하는 캐릭터는 다양하게 도전하려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여환희 기자

## 투헬 후임 찾는 뮌헨, 새 감독은 강등팀 감독 콩파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번리를 이끌고 있는 젊은 감독 뱅상 콩파니(38·벨기에)가 다음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맡을 것인가.

유럽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사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리의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 강등에도 불구하고 콩파니가 유럽 내 여러 클럽의 감독 후보로 떠올랐다"면서 "바이에른 뮌헨도 콩파니 감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콩파니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체크했다"고 전했다.

올 시즌 내내 성적 부진에 시달린 뮌헨은 지난 2월 토마스 투헬(독일) 감독과 면담을 갖고 시즌 종료 후 결별에 합의했다. 당초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끈 사비 알론소(스페인) 감독을 차

기사령탑으로 점찍고 공을 들였지만,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 잔류를 선택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울리안 나겔스만 독일대표팀 감독과의 협상도 소용없게 끝났다. 수비수 출신인 콩파니 감독은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 출신 레전드다. 지난 2022년 챔피언십 소속이던 번리 지휘봉을 잡고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뮌헨이 감독 교체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김민재의 이적설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김민재는 독일 매체 T온라인이 21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곳(뮌헨)에서는 내가 장점이라 여긴 플레이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었기에 내적 갈등이 심했다"면서 "하지만 실수를 통해 많이 배웠다. 다음 시즌에 더 강한 선수가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뱅상 콩파니가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새 감독 후보로 떠올랐다.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와 같은 센터백 출신이다. [AP=연합뉴스]

김민재는 과감하고 신속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불을 빼앗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몇 차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투헬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 언론은 시즌 종료 후 김민재의 이적 가능성을 다루는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투헬 감독이 떠나면서 김민재가 팀을 떠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김민재는 "전술적인 관점에서 감독님의 요구를 더 잘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던 만큼 다음 시즌에 뮌헨 동료들과 함께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한편 위르겐 클롭(독일) 감독이 물러나며 사령탑에 공백이 생긴 프리미어리그 클럽 리버풀은 후임으로 아르네 슬롯(네덜란드) 페예노르트 감독을 선임했다. 리버풀 구단은 "슬롯은 구단 역사상 첫 네덜란드 출신 감독"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팀을 이끈다"고 소개했다. 송지훈 기자

▶1면 '이사'에서 이어집니다  
▶주소지 이전 신고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이사 몇 주 전부터 가스,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등과 같은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해 새로 바뀌는 주소와 서비스 시작 날짜를 알려줘야 한다. 새로 이사 가는 지역의 유틸리티 관련 회사 연락처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이전 집주인에게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케이블 TV, 유선 전화의 경우는 이사 후 연락을 취해 설치하면 된다. 유틸리티 업체에 새 주소를 고지하는 것만큼 우편물 주소 변경도 중요하다. 현재 거주지 로컬 우체국에 새로 이사 가는 곳의 주소를 미리 제공해 이사 후 차질 없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전 주소로 돼 있는 우편물들이 자동으로 새 주소로 배달된다. USPS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총 3320만 건의 주소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소지 변경 신청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usan: Do you want to play tennis today?  
수전: 오늘 나랑 테니스칠래?  
Roberta: No way!  
로버타: 절대 안돼!  
Susan: Why not?  
수전: 왜 안돼?  
Roberta: It's way too hot.  
로버타: 너무 더워.  
Susan: So what do you want to do?

수전: 그럼 뭐하고 싶은데?  
Roberta: Let's walk around an air-conditioned mall.  
로버타: 냉방된 쇼핑몰을 걸어다니자.  
Susan: Now you're talking. I'll drive.  
수전: 좋은 생각이야. 내가 운전할게.  
Roberta: Which mall do you want to go to?  
로버타: 어느 쇼핑몰로 가고 싶어?  
Susan: The new mall that just opened is so far

away.  
수전: 새로 생긴 쇼핑몰은 너무 멀어.  
Roberta: Yes. It is a ways away. Let's go to the one near the beach.  
로버타: 맞아. 너무 멀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데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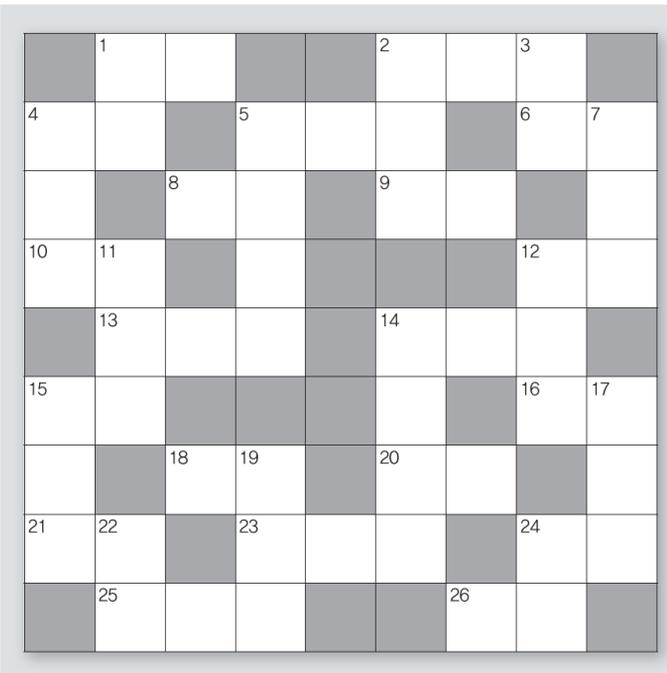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 no way: 절대로 안돼

way too (plus an adjective); 너무, 과도하게

(Susan is talking to her friend Roberta~)  
(수전이 친구 로버타와 얘기하고 있다...)

"No way am I going to go out in this cold weather."  
(이렇게 추운데 나가다니 난 안해.)  
▶ now you're talking: 그거 좋은 생각이야  
Jim: "It's Friday! Let's go home a little earlier today."  
(금요일이야!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자.)  
Roger: "Now you're talking."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날말퀴즈



가로열쇠

(1) 한 달에 하루씩 있는 유급 휴가 (2)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 ~이 바위를 뚫는다 (4) 척추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조직. 살갓 (5) 절반쯤이 지면 아래에 있는 방.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 가족이 여기에서 살고 있죠 (6) 남의 누이를 높여 부르는 말. 이 씨의 ~는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지요 (8) 지난날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하던 시험 (9) 산에서 나는 나물. ~ 비빔밥 (10)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 결혼 (12) 한옥의 부엌 천장 위에 이중처럼 만든 곳 (13) 술알을 갈아 먹는, 술나방의 애벌레 (14) 곡식이나 눈을 한곳에 밀어 모으는 데 쓰는 연장. □가□ (15) 팔다 조금 남은 물건을 다 떨어져 싸게 파는 일. ~요 ~ (16)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하루 세 번 먹는 밥 (18) 흰쌀 (20) 손을 위로 들어올림. ~ 경례 (21)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한껏 벌린 거리 (23)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 (24) 도망간 종을 찾아오던 일 (25) 금품의 출납을 기록하는 장부. 손님들의 외삼값을 ~에 꼼꼼히 적어 두었다 (26) 밝은 달. ~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세로열쇠

(1) 금액을 다달이 나누어 내는 일. 달빚기. 그는 12개월 ~로 자동차를 장만했다 (2)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뛰어내릴 때 필요한 것 (3)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진 정도. 구배. ~가 싸다(기울기가 크다) (4) 결혼식을 마치고 친척한 친지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베푼다 (5) 배우던 것을 중도에 그만두어 다 이루지 못한 사람. □□충□ (7) 범씨. 전혀 믿기지 않는 말(얼토당토한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쓰는 말. 귀신 ~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11) 예티가 나는 사람이나 물건 (12)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곱아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 (14) 네 활개를 벌리고 뒤로 발령 나자 빠짐. □장□□ (15) 겨레불이나 한통속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 처가 ~가 와 글와글하는 꼴이 보기 싫어 멀리 이사했습시다 (17) 술집에서 젓가락 장단을 치면서 부르는 노랫가락이나 대중가요. 술자리는 이미 무르익은 듯, 대폿집에서는 ~ 장단이 요란했다 (19)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획 (22) 길이가 한 뼘쯤 되는 물건이나 물고기 (24) 뒤에서 따라잡아서 앞의 것보다 먼저 나아가감. 앞지르기

스도쿠

		8			2	6	7	
					3	4		
9	7			1	5	8		
	4		7		9		1	6
2	1		4	5			3	
			1				4	8
		5	2		7	3		4
	3					1	8	
4	6		3	8		9		7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표현**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윤규복(40세)**

절대미각을 갖고있는 세계적인 음식평론가. 와인부터 콩자반까지, 전세계를 돌며 모든 요리와 음료에 관한 해박한 논평을 하고있다.

특히 그의 풍부하고 화려한 맛에 관한 표현은 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탁월하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오- 이건 태양의 음유시인이 부르는 경기체가군요!

**와인 품평회**

뜨겁지만 드세지않고 유약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등대를 찾아 곳곳한 맛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살짝 올드한 느낌이 오히려 '스칼렛' 해서 '오하라' 해주는 기분인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뉴 스테이크 발표회**

흠- 브라보 마이 텅!! 깃털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은 준엄한 육즙의 서스펜스가 절 놀라게 만드는군요! 물론 육질의 향방도 어두운 마음을 보이콧해주는 귀여운 센스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박람회**

이야..이 맛은 마치 거리를 헤매던 오페라합창단 일동이 따뜻한 벽난로 앞에 돌아와 부르는 꿈과 희망의 컨트리 다이어리 주제가 같군요! 마치 그 구성진 색소폰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한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응?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다면 한 말씀..

**집**

맛있어.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액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예년대입 **703-354-1515**  
2층소매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MEMORIAL Day**  
Special **메모리얼데이 스페셜**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들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헬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는 **체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폼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800 \$2,500** 본토헬침대 100% 생황토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빻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드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슬림핏질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핀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불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핀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불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워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팜팡송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필자 스틸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800 \$3,500** **빅빅 세일기**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영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3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0cm  
건식 반신욕기 70cm

**발목펌프 지동운동기**

발목펌프 지동운동기

발목펌프 지동운동기

발목펌프 지동운동기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벽벽함 눈공막-이물감 부연시아 눈부심-홍혈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열힐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딤 티슈 마사지기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진지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봉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불 원적외선 매트

7월호성

**기모크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월 매트/일월 매트/일월 매트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발매/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정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 온수매트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 채용 공고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문: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바스타우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팩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력자 우대  
Benefit(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x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급휴가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엘리엇 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파실분  
유우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동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워싱턴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티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슈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수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파트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루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엘터레이션>**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연락처: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폴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리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집업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휘경력)  
 -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점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교사 모집  
 토틀러반 파트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매케팅관리 하실분. 신분부.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우드.  
 202-271-2726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된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장실 포함). 전체 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전체 렌트(거실, 화장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볼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맞은편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랑 길에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 싱글홈 2층 방 렌트  
 취사가, 즉시 입주 가능  
 703-732-9153

센터빌 뉴 싱글하우스 자하방 2개, Full Bath  
 703-508-7743

Fair Oak INOVA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방 렌트. Rt. 50, 286, H-mart 가까운 곳.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남자 /금연자 환영.  
 571-236-0834 (Mrs. Roh)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 렌트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취사가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완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난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샤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아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물부근 싱글홈 반 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홈 방 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 렌트  
 지하방+거실, 환풍기, 방화,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시니어(장애인)의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도서관,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물건 거래 사례**

- ▶ 1층 주택 (Ground Level) \$490,000 ~ \$570,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대지 0.3에이커 텃밭 (No HOA)
- ▶ 콘도 (Main Level) \$300,000 ~ \$370,000  
 방2, 화2 / 1,000 ~ 1,200 SF, 주차 편리한 곳, 저렴한 콘도피 (\$350 내외, Water & Trash 포함)
- ▶ 골프장 커뮤니티 Luxury House / Condo \$510,000 ~ \$600,000  
 방3(2), 화2,1 Garage Gate Community 55+ Senior
- ▶ 근린, 전원생활, 주말농장 \$350,000 ~ \$650,000  
 도심으로부터 30분 ~ 1시간 근린 생활권, 대지 1에이커 이상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렌트, 홈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룸,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방 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 (\$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눔  
전화: 571-699-9707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 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던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애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정점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 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 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인근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알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토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업무  
▶ 571-294-0057 (Jim Dong)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세로 운살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샅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 매매〉

19년 커머셜 Ford 450/110,000마일/\$55,000  
301-751-1631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싸라쟁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트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240-796-0093 (따시러는 분은 연락바람)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Mr. Chung)

### 〈보석〉

골드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골드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클 파워 스티밍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다뤄줘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히팅 등 교환·수리  
▶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밥-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 703-340-5858 (VA)  
▶ 443-980-5858 (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급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의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방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 [dc.thekoreadaily@gmail.com](mailto:dc.thekoreadaily@gmail.com)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mailto: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전 후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iversal)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유명한 비즈니스 비치가**  
선글라스 안경+잡화  
전망좋은 장소에서  
살을 찾아보세요  
부부적합가 15만(Inv포함)  
(310)266-8086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알림**  
노인수 (Peter No)목사님께서  
12월 16일 2023년 소천하셔서  
부인 최영희(Young Hee Kim)  
알려드리오니 채무나 채권 혹은  
사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213)259-9298  
미국 캘리포니아

**수영장 청소권 매매**  
팔로스버디스/토렌스  
(818)926-2095

**애틀랜타**   
Management Manager  
in Palisades Park, NJ.  
Send resume to  
Coway USA, Inc.  
421 Wilshire Blvd, STE 210  
Los Angeles, CA 90010  
wages from \$60,000 to  
\$70,000 per year

##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패이먼트 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전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로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유희유 켈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터 속눈썹 썬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주 최대 40%  
최저가 보장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취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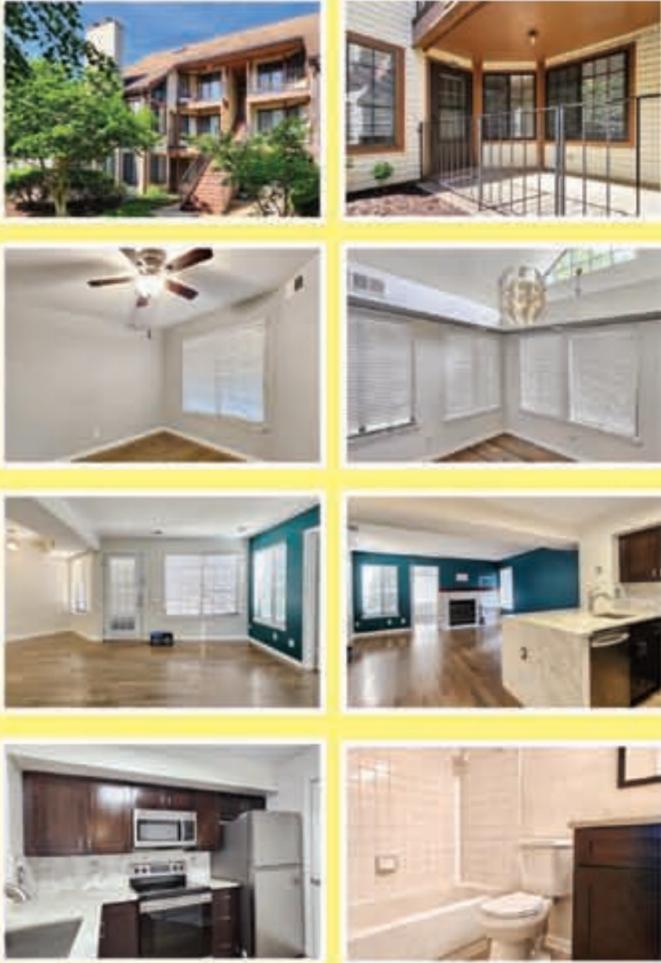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술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청해김 (Blue Ocean Laver) DOKDO FOOD & RESTAURANT SUPPLY  
www.dokdosupply.com  
213.985.4200 DOKDOSUPPLY.COM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80,0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600,000**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Woodbridge \$2,7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